

12

December 2024
vol. 278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Ready for holiday



**Rose de Noël,
Frivole and Fleurette**
Clip, ring and earrings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SUBLIMAGE LES EXTRAITS

강력한 리페어 효과

샤넬 연구소의 전문 기술에서 탄생한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리추얼은 샤넬 최초로 렉스트레 드 로씨옹, 렉스트레 드 뉘 & 렉스트레 드 크림을 하나의 리추얼로 결합합니다. 피부 활력을 충전하는 바닐라 플레니폴리아와 스웨티아 추출물의 놀라운 힘을 활용한 감각적인 루틴을 경험해 보세요. 다양한 성분을 조합한 시그니처 포뮬러는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집중 작용합니다. 사용할수록 피부는 활력을 되찾고 송고한 광채로 눈부시게 빛납니다.

* 샤넬 연구소에서 정의한 지표. 수분감, 피부 편안함, 탄탄한 피부, 균일함, 피부 강화, 광채 등 피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스킨케어 효과를 평가한 수치

CHANEL



Icon then. Icon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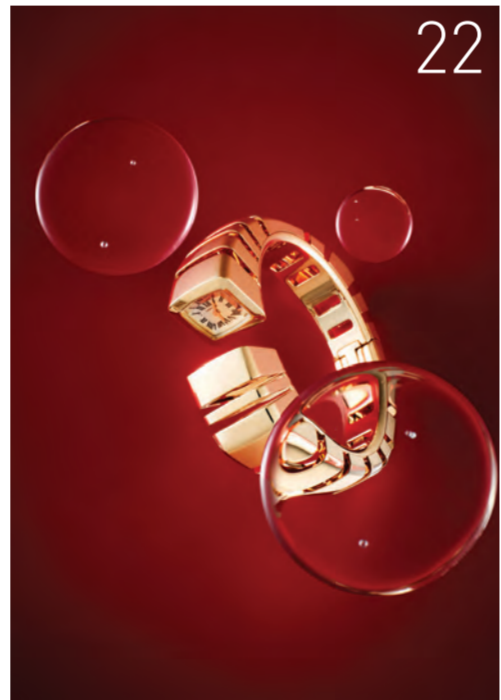
Icon always.

RE/ICONS VERONE 1980/2024



Contents

- 08_SELECTION 1** 빛나는 주얼리와 워치부터 화려함으로 무장한 패션 아이템까지, 연말 파티를 위한 드레스업.
- 10_SELECTION 2** 연말 파티 신,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해줄 근사한 아이템 셀렉션.
- 12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4_작고도 큰 존재감을 품은 페어의 미학** 현대 미술을 대하고 풀어내는 방식도 '교토답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트 페어 현장을 보며 도시의 고유성과 전시 디자인의 미학을 짚어보게 된다. 4회를 맞이한 아트 페어로 가을의 절정을 수놓은 아트 컬래버레이션 교토(Art Collaboration Kyoto) 얘기가.
- 16_시간을 멈추게 하는, 천 년 고도 속 공간의 마법** 지난 11월 초 아트 컬래버레이션 교토(Art Collaboration Kyoto) 기간에 교토의 고백이나 유서 깊은 사찰에서 조우한 현대미술 작품은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마주한 작품보다 더 잔잔하고 오래가는 울림을 줬다.
- 18_TIME OF ENCHANTMENT**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우아한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하이 주얼리 & 워치 메종, 반클리프 아펠과 함께하는 꿈의 홀리데이.
- 22_GET THE LIST** 당신의 연말을 책임질 스타일 쇼핑 리스트.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꽃의 우아한 품격을 주얼리 작품을 통해 파헤친다.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4개의 로즈 드 노엘(Rose de Noël)을 통해 주얼리의 매력을 표현했다. 각각 그레이 머더오브필 및 화이트 골드와 터퀴이즈 및 옐로 골드 소재로 제작한 펜던트와 이어링은 빛나는 세팅으로 눈부신 존재감을 펼친다. 문의 1877-4128

- 24_TIMELESS CRAFTSMANSHIP** 타협하지 않는 품질과 최고의 원자재를 추구하는 로로피아나의 탁월한 노하우(savoir-faire), 우아한 매너와 품격(savoir-vivre)을 결합해 아이콘(icon) 컬렉션을 선보인다.
- 26_FOR YOUR WISH** 선망의 대상이자 갖고 싶은 이름, 샤넬의 화인 주얼리와 워치.
- 30_HOLIDAY GIFT GUIDE** 설렘으로 가득한 연말, 소중한 이들을 위한 워치 리스트.
- 38_SAVOIR RÊVER 2024 IN JEJU** 루이 비통과 함께하는 '샤보아 레베 2024'가 제주에서 열렸다.
- 40_AESTHETICS OF DESIGN** 1백50여 년 전 여행 가방 제조업으로 시작한 루이 비통이 헤리티지를 이어받아 새로운 디자인의 침대 트렁크를 공개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예술적 비전과 루이 비통 장인의 창조적 기술의 조화로 탄생한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을 소개한다.
- 42_FORWARD TO INNOVATION** 최근 갤러리야백화점 매장의 리오프닝을 축하하기 위해 쇼파드(Chopard)의 프로덕트 매니저 캐롤라인 마리 슈펠레가 방한했다.
- 43_ANOTHER WORLD** 구찌가 개최한 사진전 〈두 개의 이야기: 한국 문화를 빛낸 거장들을 조명하며〉를 통해 탐구하는 또 다른 예술 세계.
- 44_WE LOVE YOU**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반려동물을 위한 에센셜 아이템.
- 45_단풍과 설경 사이에서의 설렘** 정아한 가을에 찾은 가루이자 여행의 안식처가 되어준 호시노야 가루이자(HOSHINOYA Karuizawa)에서 맞은 단풍의 절정.
- 46_EDITOR'S PICK** 피부를 채워주고 예쁜 패키지가 더해 연말 선물로 제격인 뷰티템 10.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성장민 sjm@chosun.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n@chosun.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별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메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12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TIME CHANGES PACE



HERMÈS CUT.
DOWN TO THE LAST DETAIL

알루미늄 소재의 19디그리 알루미늄 미노디에르 클러치크로스백 1백55만원 투미.



여성스러운 무드를 배가하는 황금의 경우 파베 다이아몬드 브러쉬스 196천원 50만원 그라프.



은은하게 반짝이는 소재로 화려한 맛을 부여하는 루렉스 트윈드 블레이저 가격 미정 루이 비통.



하우스의 상징적인 실루엣이 특징인 불가리 디바스 드림 킥고 클러치. 16x16.5x5cm, 7백35만원 불가리.



어떠한 룩에도 유니크한 포인트가 되어줄 크리스탈 장식 메탈 브로치 1백15만원 미우미우.



유려하고 심플한 라인이 맛을 배가하는 루크레치아 물 70 1백18만원 지안비토 로시.

for her Selection

빛나는 주얼리와 위치부터 화려함으로 무장한 패션 아이템까지, 연말 파티를 위한 드레시엄.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38mm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와 78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의 조화가 돋보이는 오버사이즈 퀴츠 가격 미정 바쉐론 콘스탄틴.



다양한 컬러를 활용해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켈리 초커네크리스 1백10만원 스위로브스키.



황금과 핑크 다이아몬드를 대담하게 결합한 시베리아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포탈란토.



심플하지만 대담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세팅 브러쉬 메탈로 골드 엑스라지 링 3천만원대 부쉐론.

루이 비통 02-3432-1854 불가리 02-6105-2120 지안비토 로시 02-6905-369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MCM 1600-1976 그라프 02-2256-6810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돌체앤가부나 02-3442-6888 미우미우 02-541-7443 부쉐론 02-3467-8334 스위로브스키 02-1522-9065 투미 02-539-8160 피아제 1668-1874 포랄라토 02-3143-9486



옐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선라이트 이어링 1천70만원 피아제.



섬세한 시퀸 디테일로 장식한 비브 카나드 슬링백 펌프스 1백67만원 로저 비비에.



루이 비통 02-3432-1854 불가리 02-6105-2120 지안비토 로시 02-6905-369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MCM 1600-1976 그라프 02-2256-6810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돌체앤가부나 02-3442-6888 미우미우 02-541-7443 부쉐론 02-3467-8334 스위로브스키 02-1522-9065 투미 02-539-8160 피아제 1668-1874 포랄라토 02-3143-9486

영남포토그래피/스타일링/윤지영/김민영

INCOMPARABLE ROMANCE

© GRAFF.COM



GRAFF

루이 비통 콘스탄틴 소재의 스텝 스니크 펌프스 1백67만원 MCM 파베 클러치백 1백55만원 투미 크라운 50ml 2백49만원 MCM



강인한 남성 이미지를 연출해줄 FHATE 파일럿 선글라스 63만원 몽클레르 루네프.

블랙 다이아몬드와 옻석 소재의 조화로 시크한 무드를 배가하는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라지 울루 테그 펜던트 6백67만원, 스몰 울루 테그 펜던트 3백15만원, 18K 옐로 골드의 26인치 체인 2백98만원 모두 키린.

짧은 길이로 멋스러움을 배가하는 시퀀 장식소트 싱글브레스트 재킷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실버 피나스 브라스 소재의 CD 바르크 깃털 브로치가 가격 미정 디올 맨.

심플한 디자인에 로고로 포인트를 준 로고 가죽 키링 38만원 몽클레르 칼렉션.

슈즈 앞쪽에 메탈 디테일이 특징인 피나용(Finnion) 스타드 가죽 몽크 슈즈 가격 미정 지미추.

38mm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베젤이 어우러지는 빌레레 스텔레온 8데이즈 가격 미정 불랑팡.

간결한 디자인으로 다른 주얼리와도 레이어링하기 제격인 텍스테라링 18인9천원 스위로브스키.



은은하게 빛나는 스텔라이트가 멋스러움을 선사하는 레트르 스텔라이트를 모스 펜츠 가격 미정 셀린느 옴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8K 화이트 골드로 완성한 프렌치 오픈 링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마제 모던한 디자인의 가죽 토트백, 36x50x17cm, 4백80만원 프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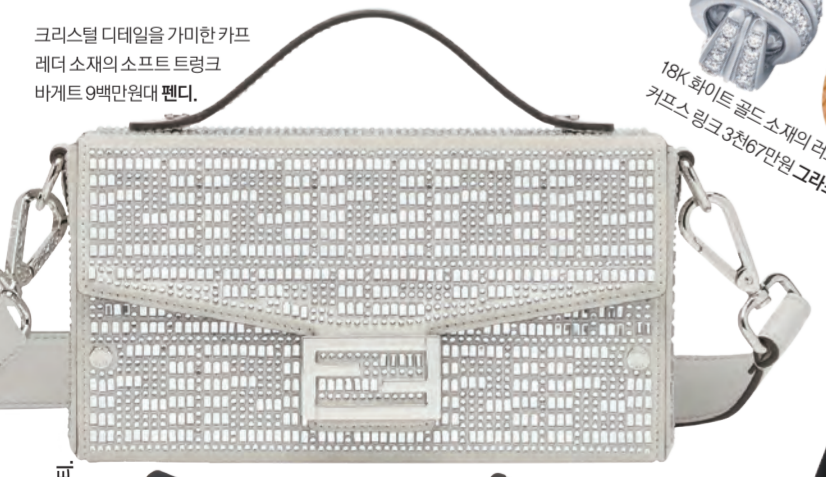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10CC 02-3018-1010 디올 맨 02-3280-0104 지미추 02-3479-1837 쥘세페 자노티 02-543-1937 그라프 02-2256-6810 몽클레르 0030-8321-0794 불랑팡 02-3479-1833 스위로브스키 02-1522-9065 키린 02-2118-6228 펜디 02-544-1925 프라다 02-3442-1830 피아제 1668-1874 쇼파드 02-6905-3390 셀린느 옴므 1577-8841

for him Selection

연말 파티 신,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해줄 근사한 아이템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크리스털 디테일을 가미한 카프 리더 소재의 소프트 트렁크 비케트 9백만원대 펜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러브 누 다이아몬드 컷프스 링크 3천67만원 그라프.



스타드로 감각적인 포인트를 준 스타드 엠베리시드 더블브레스트 블레이저 가격 미정 어네스트 더블유 베이커 by 10cc.



남성적인 디자인이 도취적인 멋을 부여하는 스웨이드와 벨벳 소재로 제작된 로퍼 가격 미정 쥘세페 자노티.



DUAL REPAIR LIFT CREAM

에이피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Dual Repair Lift Cream
Crème Double Lift Réparatrice

리프팅 특수 케어 2X 시너지

리프팅 2주 전	리프팅 24시간 후	리프팅 4주 후
+42% ¹ 피부 밀도	+202% ² 손상 ³ 회복	+213% ³ 피부 탄력

ap-beauty.com

에디터 윤지경 스타일리스트 임태영



Another Class

아티스틱 워치와 주얼 워치메이킹에 탄탄한 노하우를 지닌 주얼리·워치 메츨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les)에서 2022년 이후 2년 만에 2024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GPHG) 3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워치메이킹에 대한 공신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최고의 워치메이커임을 인정하는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에서의 수상은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깊은데, 반클리프 아펠은 무려 3관왕을 이룬 것. 여성용 워치 부문에는 레이디 데이 앤 나이트 워치, 여성용 컴플리케이션 워치 부문에서는 레이디 아펠 브리즈 데페 워치, 아티스틱 크래프트 워치 부문에서 레이디 아펠 데이 앙상블 워치가 수상했다. 이로써 반클리프 아펠은 주얼리뿐 아니라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의 1877-4128

Dog Paradise

퍼펠 월리엄스의 루이 비통 2025 S/S 남성 프리 컬렉션은 반려견과 산책시키는 인간의 도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컬렉션은 일상적인 공원 산책 등 반려견을 사랑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담아낸다. 컬렉션 아이템 중 퍼펠 월리엄스가 그려낸 컬러감을 입혀 선보이는 모노그램 헤리티지 캔버스 소재의 키플 반들리에 50을 소개한다. 'Marque L. Vuitton Déposée' 시그니처 등 다미에 캔버스에서 볼 수 있는 하우스 고유의 헤리티지 디테일로 새롭게 해석한 모노그램이 특징이다. 또 LV 이니셜을 앙각하고 패딩 처리한 강아지 발바닥 형태의 참이 달린 핸들이 귀여움을 자아낸다. 문의 02-3432-1854



변화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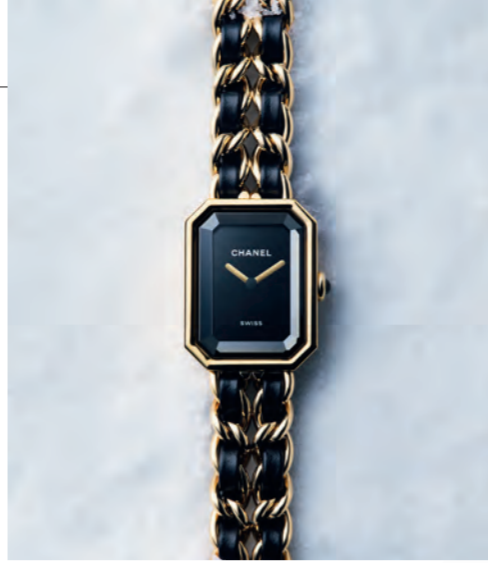
1백18년 전통의 스위스 셀룰라 코즈메틱 브랜드 발몽에서 시그니처 제품인 프라이م 리뉴잉 팩을 30ml 용량으로 새롭게 출시한다. 스위스 알프스산맥의 천연 원료를 담은 이번 제품은 기존 용량인 75ml보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선보이며, 10분 사용으로 8시간 깊은 숙면을 취한 듯 밝고 화사한 피부톤을 연출하는 것은 물론, 요철 없이 매끄러운 피복결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트리플 DNA, 리포솜 RNA, 펩타이드 각태일 등을 혼합한 셀룰라 프라이م 콤플렉스로 피부에 영양을 더해주고 숙부터 차오르는 광채를 선사해 소중한 이들에게 연말 선물로도 제격이다. 휴대성이 좋은 미니 사이즈로 각종 모임과 행사, 여행 등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프라이م 리뉴잉 팩 30ml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18만4천원, 문의 070-4352-5203



RED SYMPHONY

매혹적인 레드 포인트 주얼리 5.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아제 포제션 오픈 백블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에 강렬한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2.16캐럿 카보숑 컷 카날리언 2개와 총 0.3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0개를 세팅해 화려한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 가격 미정. 1668-1874 그라프 루비 링 모잠비크에서 소성되는 루비 원석을 사용한 링으로, 쿠션 컷으로 제작한 3.09캐럿의 센터 스톤 주위에 2개의 하트 셰이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로맨틱한 무드를 배가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256-6810 쇼메 조세핀 아그레트 펜던트 화이트 골드 펜던트에 0.75캐럿 라운드 루비 9개와 0.15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5개를 세팅해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1천만원대. 문의 02-1670-1180 프레스드 상스 인피니 이어링 총 0.18캐럿 루비 42개와 총 0.16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6개를 파베 세팅한 핑크 골드 소재의 이어링 7쌍씩5만원. 문의 02-514-3721 포멜라토 이코니카 링 은은한 로즈 골드 소재에 총 2.9캐럿의 파이로프 가닛 3개를 장식해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자아낸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Holiday Night
어느 겨울밤, 집 안에 포근한 온기를 더해줄 신상 캔들 4.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울 뷰티 라 콜렉시옹 프리베 홀리데이 에디션 브야 데 레브 캔들 세라믹 소재의 캔들 홀더에 아티스트 피에트로 루포(Pietro Ruffo)의 황금빛 드로잉을 새겼으며 포근하게 감싸 안는 우디 향이 특징. 250g 16만원대. 문의 080-342-9500 아쿠아 디 파르마 피넛토네 캔들 밀라노의 전통 디자인인 피넛토네를 모티브로 한 캔들로 시트러스, 바닐라, 실랑에 절인 과일 노트가 조화를 이룬다. 200g 12만5천원. 문의 02-6905-3568 조 말론 런던 비터 오렌지 앤 초콜릿 캔들 부드럽고 씹새로운 다크 초콜릿과 상큼한 오렌지 필링의 향이 조화를 이루며 넉넉한 대용량으로 출시해 70시간의 글래스 시간을 자랑한다. 300g 20만2천원대. 문의 1644-3735 담티크 클래식 캔들 & 중 보 사평 캔들 슬리브 진저브레드 향과 구아방드의 풍미를 연상시키고, 겨울 소나무가 연상되는 펠트 소재의 슬리브를 탈착할 수 있어 가열된 캔들로부터 손을 보호해준다. 각 190g 12만4천원, 13만8천원. 문의 02-3446-7494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Forever Beauty

샤넬 워치의 상징인 프리미에르는 샤넬의 첫 워치메이킹 작품이다. 1987년 당시 샤넬 아티스틱 디렉터 자크 엘루(Jacques Helleu)가 디자인했다. 그는 강렬하고 독특하면서도 영원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샤넬 워치 프리미에르다. 그의 노고로 프리미에르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세련되고 아름답다. 또 다른 샤넬의 상징인 향수의 팔각형 스토퍼부터 아이코닉한 백에 사용한 레더와 체인을 엮은 스트랩에서 착안한 브레이슬릿까지, 샤넬 워치를 하나 소장한다면 단연 프리미에르를 선택할 것이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PROMOTION



전자동 시스템을 선사하는 커피 메이킹의 혁신

찬물에 분쇄한 원두를 넣고 적어도 4-5시간 기다려야 하는 게 일반적인 골드 브루 커피. 그래서 가정에서는 원액을 사두고 마시는 경우도 많지만, 기계로 1분 만에 추출해 바로 즐길 수 있기도 하다. 스위스 프리미엄 전자동 커피 머신 브랜드인 유라(JURA)의 프리미엄 모델 '기가10(GIGA10)'이 그렇다. 원두 용기 2개를 장착한 이 커피 머신으로는 각각 원하는 원두를 채워놓고 취향에 따라 블렌딩할 수도 있다. 어쩌면 '유라'라는 브랜드명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세계 곳곳의 웬만한 호텔이나 비즈니스 센터에서 접해볼 가능성이 높다. 1994년 최초의 모델(IMPRESSA 500)을 선보인 이래 30년 동안 8백만 대 이상의 전자동 커피 머신을 내놓으며 노하우를 쌓아온, 이 분야에만 전념하는 브랜드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워크 플러스, 상업용 커피 머신 시장, 그리고 프리미엄 가정용 시장까지 아우르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자동 커피 머신 브랜드임을 자부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라 호스피탈리티 센터 서울'을 세운 유라는 최근 조선 맬리스 호텔(강남)에서 센터 오픈 행사와 더불어 정식 판매에 들어간 기가10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군을 활용한 시음 행사를 열고 앞으로 빼어난 애프터 서비스로 고객 경험의 질을 높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유라 본사에 자리한 유라 호스피탈리티 센터에서는 스위스 본사와 동일한 전용 장비로 커피 머신의 정밀 진단부터 수리, 클리닝, 디스캐밍, 세척 등 총 일곱 단계의 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커피 원두 추천도 해준다. 유라는 현재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같은 온라인 매장은 물론 전국 주요 백화점에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 www.jurakorea.co.kr

LOVELY GIFT ITEMS



홀리데이 패키지로 더 매력적으로 변신한 뷰티템.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러쉬 리유저블 비블 바 캔디 캐인 지팡이 모양의 리유저블 비블 바 제품으로 사용 후 건조시켜 재사용할 수 있으며 레몬 오일을 함유해 피부 톤을 화사하게 연출한다. 80g 1만5천원. 문의 1644-2357 나스 24캐럿 골드 홀리데이 컬렉션 실금 아이세도우 골드 러쉬 나스 30주년을 맞이하여 출시한 24캐럿 골드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실버와 골드 핏이 들어 있어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1.1g 3만2천원. 문의 080-564-7700 랑콤 압솔뤼 루즈 드라마 마트 #196 시피아 우아레스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2024 홀리데이 컬렉션 레드 브라운 톤으로, 반짝이는 발빛과 랑콤의 로즈 페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셀레스티얼 로즈 페던 케이스가 특징. 3.4g 5만 5천원. 문의 080-835-0094 조 말론 런던 퍼 앤 아르테미지아 코롱 크리스마스트리 향연하는 전나무의 우디 향과 아르테미지아 향으로 상쾌함을 더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100ml 23만5천원. 문의 1644-3753 포토그래퍼 최민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Pink Perfection

태그호이어는 브랜드의 모험 정신을 담아내는 동시에 라스베이거스의 활기에 찬사를 보내는,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스킵 레톤 핑크를 새롭게 선보인다. 유쾌하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컬렉션이 지니고 있는 깊은 헤리티지가 조화를 이루는 워치로, 선명한 핑크 스킵레톤 다이얼은 라스베이거스의 활기찬 분위기와 도시 조명을 상징한다. 내부에는 최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제작한 무브먼트 칼리버 호이어 O2 오토매틱 (TH20-00)을 장착했다. 또 세련된 블랙 DLC 코팅으로 마감한 가벼운 티타늄 케이스는 3시와 9시 방향 카운터와 핸즈, 크로노그래프 세컨드 핸즈의 선명한 핑크 디테일과 대비를 이루는 모던한 디자인을 제시한다. 문의 02-548-6020



다이아몬드, 그 찬란한 순간

그라프의 긴자 플래그십 살롱 오픈 3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열렸다. 다이아몬드를 향한 메종의 헌신과 노하우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메야 프로스페리티(Meya Prosperity) 원석의 진귀한 피스가 처음 공개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라프의 앰배서더인 트와이스 사나가 메종의 역사적인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를 착용했는데, 이는 4백76캐럿의 메야 프로스페리티 원석을 메종이 직접 커팅 및 폴리싱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총 1백2.38캐럿의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를 완성하고 세팅했다. 또 메야 프로스페리티 다이아몬드 주변에 모던한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해 더욱 시선을 집중시키며, 네크라인에 찬란한 광채와 반짝임을 더해준다. 문의 02-2150-2320



아트 컬래버레이션 교토(Art Collaboration Kyoto) 2024

작고도 큰 존재감을 품은 페어의 미학

오랫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는 흔히 '천 년 고도'라 불릴 만큼 오래된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도시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무수하게 품은 고아한 미가 워낙 강렬해 사시시절 찾고 싶어 하는 방문객이 많다. 물론 우리는 그저 오래되었다고 해서, 혹은 희소하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는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 교토는 일본 문화 특유의 과거에 대한 존중이 잘 반영되는 도시지만, 동시에 그릇대 높은 자존심을 맞춰주듯 현대성 역시 과하지 않게, 별 티를 내지 않는 세련된 방식으로 품고 있다. 현재의 교토를 살아가는 이들이 현대미술을 대하고 풀어내는 방식도 '교토답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아트 페어의 현장을 보며 도시의 고유성과 전시 디자인의 미학을 짚어보게 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아트 페어로 가을의 한자락을 수놓은 아트 컬래버레이션 교토(Art Collaboration Kyoto) 얘기다.

프리즈 서울의 등장을 비롯해 팬데믹 기간에는 아시아의 미술 지형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일본도 빠질 수 없다. 3년 전 가을 '소프트 론칭'을 시작으로 해마다 도쿄 곳곳에 있는 여러 미술 공간을 다닐 수 있도록 전용 버스 and 앱을 제공하는 쇼케이스형 축제인 '아트 워크 도쿄(AWT)'가 열리고 있고, 같은 해인 2021년 교토에서도 일본 갤러리가 해외 갤러리와 짝을 지어 하나의 부스로 참가하는 흥미로운 발상의 아트 페어가 생겨났다. 어느새 교토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트 페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아트 컬래버레이션 교토(Art Collaboration Kyoto, ACK)'다. 어쩌다 보니 매년 AWT를 찾았던 필자는 그동안 교토 → 도쿄로 이어지는 행사 일정을 소화한 이틀로부터(내년에 ACK는 11월 중순으로 날짜를 옮긴다) 늘 ACK 얘기를 듣고는 궁금해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현장에 가게 됐다(퍼블릭 데이 11.1~3).

젊고 신선한 플랫폼의 등장, 그리고 교토라는 도시 브랜드의 위력

교토는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외곽에 위치한 국제 컨퍼런스 센터(ICC Kyoto)에 자리한 ACK 전 시장은 첫 행보였다. 컨퍼런스 센터는 어디를 가나 크게 새로운 게 없다지만 한적한 동네에 초록이 짙은 배경을 둔 ICC 입구는 초면에도 살짝 정겨운 느낌이 들었다. 운치 있게 천막을 두른 통로를 따라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첫눈에 반했다. 프리뷰 첫날(10월 31일)이라 북적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각각의 부스를 화이트 큐브 일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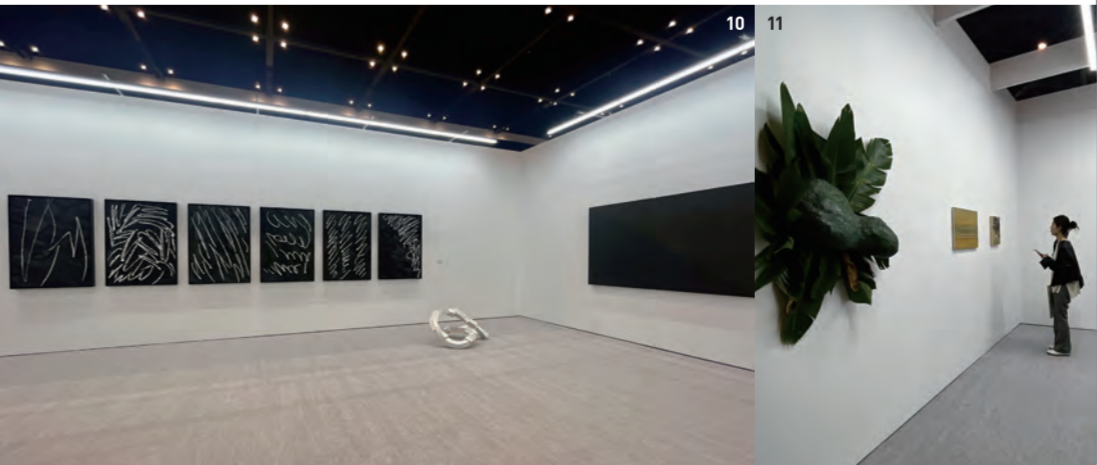
1 지난 10월 31일 프리뷰 데이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11월 1~3 일)을 펼친 아트 컬래버레이션 교토(Art Collaboration Kyoto, ACK) 2024 부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 아트 페어는 국제 컨퍼런스 센터(ICC Kyoto)에서 열렸다. 2 ACK 전시장으로 가는 길. 3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형태에서 벗어나 나무 프레임으로 두른 전시 부스가 특징인 ACK의 전시 디자인. 4 당면하 부스의 벽 일부만 열려 있지만 나무 프레임 덕분에 따스하고 개방적인 느낌을 주고 전체 통선이 바둑판이 아니라 살짝 미로 같아 '우연한 충돌' 효과도 기대된다. 5 ACK 프로그램 디렉터 야마시타 유키코(Yukako Yamashita). Photo by Matsumi Takuya Courtesy of ACK 6 ACK 페어에서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마리아 네포무체노(Maria Nepomuceno) 작가의 설치 작품. 단사일 내 교토를 대표하는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한 ACK는 교토를

아니라 적자형 창살 같은 '오픈형' 나무 프레임으로 두른, 전형성을 벗어난 전시 디자인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 지점에서 고백하자면, 이러한 '반가운 발견'은 공간이든 전시든 작품이든, 우연히 접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굳이 '이미지 정보를 미리 찾아보지 않는' 성향의 순기능일지도 모르겠다. 이미지로 현혹하고 또 현혹당하는 이 시대에 되도록 포섭되지 않고 선입견을 차단하려는 의지와 게으름이 섞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덕분에 때때로 남들은 다 아는 풍경을 오롯이 새롭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협업 정신이 모든 것(collaborative spirit is everything)!'이라고 당차게 강조하는 ACK 프로그램 디렉터 야마시타 유키코(Yukako Yamashita)의 말처럼 페어가 내세우는 키워드는 '협업'이다. 전 세계 24개 도시(18개 국가/지역)에 걸친 69개 갤러리가 참가했는데, 여기에는 일본에 기반을 둔 27개 갤러리가 '호스트' 자격으로 초청한 29개의 '게스트' 갤러리(하나의 호스트 갤러리가 복수의 게스트를 초청할 수도 있는 구조)를 더한 56개가 포함되어 있고(호스트-게스트는 하나의 부스를 선보인다), 교토와 인연을 맺은 갤러리가 단독 부스를 차리는 '교토 미팅(Kyoto Meetings)' 섹션에 나온 13개 갤러리를 더 가됐다. 올해 ACK를 찾은 한국 갤러리로는 지난해 게스트 갤러리로 나왔다가 이번에는 교토 미팅 섹션에 참가해 활동한 판매 실적 올린 조현화랑(부산)을 비롯해 도쿄 갤러리 아노말리(Anomaly)와 청두 기반의 갤러리 어 사우전드 플래토 아트 스페이스(A Thousand Plateaus Art Space)와 짝을 지은 N/A(서울), 그리고 도쿄 갤러리 CON과 함께 부스를 차린 WWNN(서울)이 있다. 사실 엄연히 작품을 판매하는 상업 페어임을 감안할 때는 '협업'이 자칫 이상적인 구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갤러리 비즈니스나 그 장터인 현대미술 페어가 꼭 서로를 갉아 먹는 경쟁 구도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새겨들 법했다.



'협업' 정신과 영민한 전략이 묻어나는 '열린' 디자인

갤러리업계의 '동료'들이 손을 잡는 협업이라는 키워드도 그렇지만, 각각의 부스가 합판과 철제 지지대로 만든 온기 어린 감성의 프레임 사이로 작품들이 열린 방향에서 보이고 이 사이를 흐름에 쓸리듯 이동하며 감상하는 구조가 완-원을 소구하는 페어와 결을 맞추는 듯한 전시 설계도 인상적이었다. 가로, 세로가 같잖이 짜인 배열이 아니라 중간중간 좁은 통로와 널찍한 공간도 아우르는 살짝 미로 같은 동선이라 의외로 나름 역동적인(?) 전시 탐험을 즐길 수 있다. 건축가 다카시 스오가 설계를 맡았다는 ACK의 전시 디자인은 '열린 협업'이라는 키워드와도 잘 맞아떨어지지만 크지 않은 페어의 규모와 더불어 입이 벌어지는 고가의 작품을 자주 내놓는 메가 갤러리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참가 갤러리 땅단에도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트 바젤이나 프리즈 페어에서 자주 접하는 구미의 명성 높은 갤러리와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갤러리의 이름은 보이지만 아무래도 개성 있는 자국(일본)의 중소 갤러리가 더 많이 눈에 띄고 대형 고가 작품보다 중저가 소품이 전시 작품의 주를 이룬다. '호스트-게스트'라는 특유의 구조가 어느 정도는 하나로 브랜드링하는 효과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 방향으로 동선이 '열린' 전시 디자인은 페어 방문객들이 새로운 발견을 하도록 유도하고,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과 교류를 하는 '우연한 충돌'을 염두에 둔 영리한 설계라고 느껴진다. 실제로 필자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름인 실력파 갤러리 가오코유키(도쿄)와 상파울루 기반의 멘데스 우드 DM 갤러리, 타로 나스(도쿄)와 매슈 마크스 갤러리(뉴욕), 유미코 지바 어소시에이츠(도쿄)와 카스텔리 갤러리(뉴욕)의 협업 등도 눈여겨봤지만 도쿄 갤러리 쇼 + 1(Sho + 1)이라든가 교토 기반의 카네게(Kanegae) 갤러리가 가장 즐거운 발견이었다. 폐가전 등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어반 마인드'에 입각한 진취적이고 재치 있는 작품을 내놓은 카네게의 경우에는 '연필로 그렸다고 믿기 힘든 세밀화 같은, 비인간적인 수준의 기술(inhumane skills)'을 지닌 다양한 작가들에게 관심 있다고 하는데, 교토 시내에 있는, 공예를 병치한 전시 공간도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직 젊은 페어지만 ACK 참가를 원하는 갤러리들의 러브콜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는데(미술 시장은 하향세지만 ACK의 경우 참가 신청이 35% 증가했다), 그레도 주최 측은 참여 갤러리 수를 70개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고 '작은' 페어의 미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실히 페어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전시장 곳곳에 조각과 설치, 그리고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의 영상 작업을 감상할 수 있는 '퍼블릭 프로그램'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발품을 파는 피로감을 덜어준다. 어차피 페어 규모는 유지하되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비롯해 아예 전시장 바깥에서 열리는 장외 전시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가' 이미 정원을 걷고 트랙이나 사찰 등 교토만의 로컬리티를 활용한 장외 전시가 갈수록 보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협업'이라는 사랑받는 키워드를 다면적으로(기관-민간의 협업, 상업 브랜드와 미술계의 협업 등) 유지하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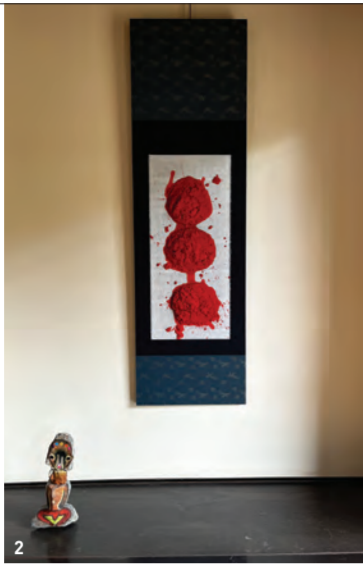
현대미술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올해에도 영상과 설치기 주를 이루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 해외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토크, 심택인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젊은 작가에게 수여하는 '모데리 프라이즈 교토 2024', 교토의 특수성을 살려 사할과 고택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장외 전시 등도 마련됐다. 6 ACK는 전체적으로는 일본을 기반으로 한 갤러리가 해외 '게스트' 갤러리를 초청하는 짜임새가 흥미로운 페어다. 도쿄 갤러리 타로 나스(Taro Nasu)와 매슈 마크스 갤러리(Mathew Marks Gallery, 뉴욕)가 함께 선보인 부스 풍경. 7 도미오 고야마 갤러리(도쿄)와 이치 모던(타이베이) 갤러리의 합동 부스. 중앙에 있는 패널 작품은 쟁쟁임(Tseng Chien-Ying) 작가 작품(이치 모던). 8, 9 교토 기반의 갤러리 카네게(Kanegae)의 시내 전시 공간(왼쪽)과 홍콩 갤러리 더 숍하우스(The Shophouse)와 같이 꾸린 ACK 전시장 내 부스 모습(오른쪽). 10 이매, 박서보, 김중환 등 우리나라 대표 작가들의 작품으로 좋은 판매 실적을 거둔 조현화랑의 ACK 부스. 작년에는 도미오 고야마 갤러리와 짝을 지어, 올해는 교토와의 남다른 인연을 지닌 화랑들이 초청받은 '교토 미팅(Kyoto Meetings)' 섹션에 참가했다. 11 가오코유키(도쿄)와 상파울루 기반의 멘데스 우드 DM 갤러리의 ACK 부스. * 2, 3, 5-7, 9-11 Photo by 고성연 * 8 Photo by Hye Yeon Park

콘셉트의 명확한 장단점, 어떻게 진화해나갈 것인가?

물론 어느 일이나 그렇듯 당장은 우레가 되는 한계점도 보인다. "교토라는 도시도 그렇고, 호스트-게스트라는 콘셉트와 구도도 분명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모델인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적어도 '게스트'는 매년 달라지는 현 구도라면 타 아트 페어처럼 꾸준한 참가를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 전혀 다른 지리적 배경과 성장 과정을 거쳤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호스트-게스트의 '함'이 어색한 경우도 더러 눈에 띄었듯, 주제나 물성, 색깔 등으로 엮는 '짝짝' 구성이 언젠가는 험악해지는 모습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한 역할을 단독 부스로 꾸리는 '교토 미팅' 섹션이 어느 정도 해주고는 있지만, 차라리 이 섹션이 추가 되고 다양한 협업을 꾀하는 여러 섹션을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들린다. 글로벌 미술 거점으로서의 더 나은 성장과 진화를 위한 모색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틈틈이 도시 산책을 하다 보니 이 협업이라는 그럴듯한 키워드를 둘러싼 진짜 주인공은 '교토라는 생각이 스친다. 아직은 현대미술 시장 규모가 작지만 전통이 남다르고, 취향과 자금이 있는 컬렉터들이 배경에 있으며, 도시 자체의 팬이 부지기수로 많은 교토, 이 매혹적인 도시를 위한 창의적 협업이라면 누가 쉽게 마다할까 싶다. 글 고성연

따로 또 같이, 보스코 소다-가토 이즈미의 우정 어린 교감_료소쿠인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선종 사찰인 겐닌지(建仁寺)의 탐두사원(塔頭寺院, 대사찰 인근에 있는 작은 사찰) 중 하나인 료소쿠인(兩足院)에서 열리는 전시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 발걸음을 옮겼다. 14세기 사찰인 만큼 고색창연하지만 매우 정갈한 정원 입구에 당도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줄로 질서 정연하게 들어가는 다국적 일행을 보고 미소가 지어진다. <黠: Speaking in Silence>라는 제목의 전시는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멕시코 작가 보스코 소디(Bosco Sodi, 1970~)와 일본 작가 가토 이즈미(Izumi Kato, 1969~) 2인전. 고즈넉한 사찰 내부를 비롯해 정원 등 외부에는 강렬한 색과 풍부한 질감의 어우러짐이 매력적인 소디의 단색조 추상 작업과 언뜻 기괴한데 자주 보면 귀엽기도 한 알 수 없는 생명체를 조각으로 빚어낸 가토의 구상 작업이 한 공간에 놓인 이색적 풍경이 펼쳐진다. 예컨대 커다란 몸집을 옆으로 누인 가토의 조각상 앞



1 지난 11월,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멕시코 작가 보스코 소디(Bosco Sodi, 1970~)와 일본 작가 가토 이즈미(Izumi Kato, 1969~) 2인전이 일본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선종 사찰인 겐닌지(建仁寺)의 탐두사원 중 하나인 료소쿠인(兩足院)에서 열렸다. 2 료소쿠인 사찰 내부에 전시된 두 작가의 작품들. 3 료소쿠인의 정원에 놓인 두 작가의 작품들은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 <黠: Speaking in Silence>라는 전시명처럼 무심한 느낌도 들지만, 어찌 보면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 ※ 1-3 Photo by 고성연



에 이를 마주하는 각도로 배치한 소디의 작은 금빛 조각이라든지 돌덩이에 열게 금칠을 해놓은 듯한 소디의 덩치 있는 조각과 수려한 나무들을 배경으로 연못가 돌 위에 세초롬하게 앉아 있는 가토의 앙증맞은 조각의 병치 같은 구도다. 두 작가의 전혀 다른 개성을 지닌 작품들이 오래된 사찰 구석구석을 나란히 수놓으며 보물창기 같은 재미를 관람객에게 선사하는 2인전. 솔직히 처음에는 '역사성'과 '국제성', '다음의 미학' 같은 요소를 한데 녹여내려는, 일종의 공식을 따르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볼수록 인간의 생사, 자연, 원시적인 생명력 같은 주제의 공통분모가 느껴지는 조합이기도 하다. 독특한 색감과 물성을 다루는 원초적인 태도도 그렇고 말이다. 수년 전 부산 조현화랑에서 개최된 한국 첫 개인전(최근에도 이곳에서 전시가 열렸다)에서 만난 소디가 어린 시절 치유책으로 미술을 접했고, 작업도 무아이경의 의식처럼 진행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알고 보니, 둘은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한다. 비슷한 나이대(50대 중반인) 두 작가는 2007년 도쿄에서 처음 알게 되어 서로의 일상 언어를 전혀 몰라 소통도 잘 되지 않았지만 긴 우정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자연과 재료와의 진중한 대화 속 창의적 교감도 나눴다는 이번 전시의 큐레이팅도 돌이 함께 말했다. 글 고성연

보스코 소다-가토 이즈미 2인전 <黠: Speaking in Silence>
 전시 장소 료소쿠인,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고마쓰초 591
 전시 기간 2024년 11월 2-17일
 홈페이지 https://www.penrotin.com/exhibitions/izumi_kato--speaking-in-silence-bosco-sodi-izumi-kato/12454

시간을 멈추게 하는, 천 년 고도 속 공간의 마법

예술은 종종 일상의 '외부 존재'로 인식되기 쉽고, '예술품'이 배치된 공간은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벗어남'의 공간이 된다. 그러한 비일상적 풍경이 선사하는 기쁨의 순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짧은 여행이 되기도 한다.

고요함 속, 더 집중하게 되는 루카스 아루다의 세계_다이토쿠지

기억과 상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나드는 사색적인 회화로 유명한 루카스 아루다(Lucas Arruda, 1983~)의 작품을 품은 무대(ACK 부대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전시)는 교토 시가지의 북서부에 위치한 일본 최대 규모의 선사 다이토쿠지(大徳寺). 다도 애호가라면 꼭 들러야 할 '차의 명소'이기도 한 다이토쿠지 내에는 무려 23개의 탐두사원이 있는데, 그중 22개 암자가 차석(茶席, 차를 마시는 공간)을 따로 갖추고 있다. 또 일본 다도의 대가이자 차 문화를 대중화한 주요 인물인 센노리큐(1522~1591)의 목상도 볼 수 있다. 그 자체로 정결하고 차분하며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이토쿠지에서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의 예술가 루카스 아루다의 작품은 마치 오래전부터 자리해온 것처럼 각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다. 내면에 쌓인 기억에서 추출한 빛과 그림자로 버무린 미묘한 풍경을 그려낸 그의 작품들은 관객을 잠시 사색의 시간으로 초대하는 것 같았다.



1 다이토쿠지(大徳寺) 내 다실의 모습. 정원 속 작은 교랑을 건너면, 단정한 다실의 평온한 모습이 펼쳐진다. 2 루카스 아루다, 'Untitled'(Deserto-Modelo' 시리즈), 거칠고 오래된 벽과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균형을 통해 표현한 내면의 형이상학적 풍경이 부드러운 조화를 이룬다. 3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실험하며 그려낸 'The Deserto-Modelo' 시리즈 중 한 작품. ※ 1-3 Photo by Hye Yeo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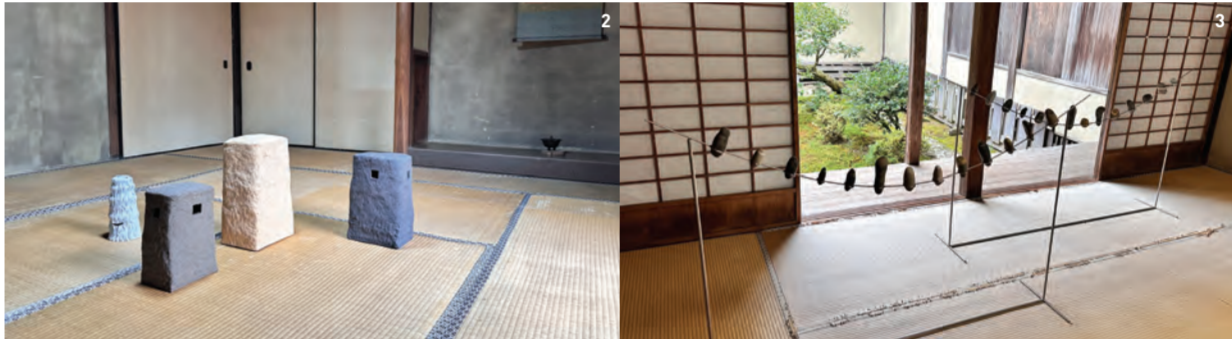
7백여 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는 벽에 걸린 그의 작품들은 오롯이 자신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을 보러 이동하는 짧은 순간마다 길목에서 마주하는,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 속 '정원'이라는 공간의 환기는 작품 감상 여정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섬세하게 배열된 돌과 갈퀴로 물을 형성화한 하얀 자갈의 흐름이 눈에 들어왔다. 루카스 아루다가 그려낸 추상과 구상의 경계가 보여주는 '모호함'은 관람자인 우리가 끊임없이 그 경계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해나가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비일상적인 모호함 속에서 감상자가 헤매는 그 시간은, 몇백 년을 견뎌온 사찰의 낙낙한 세월 속에서 그저 찰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 일순간을 충분히 헤매고 즐겨도 될 만큼, 사찰은 세월의 너른 흔적과 자연의 성긴 매력을 온전히 품고 있었다.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도, 혹은 찾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다이토쿠지가 또 어떤 작품을 품게 될지 기대된다. 글 박해연

루카스 아루다(Lucas Arruda) 개인전 '멘데스 우드 DM(Mendes Wood DM) 갤러리
 전시 장소 다이토쿠지, 교토부 교토시 기타구 무라사키노 다이토쿠지초 53
 전시 기간 2024년 10월 31일~11월 7일
 홈페이지 https://a-c-k.jp/en/associated-programs/lucas-arruda

소외되고 분열된 자아를 묻는 듯 섬뜩한 '허상위표' 조각_만슈인

천 년 고도답게 유적도 사찰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북쪽 신기술에 위치한 만슈인(曼殊院)은 일본 황실 출신이 이끈 적이 있기에 유달리 유서 깊고, 무려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교토의 오래된 사원이다. 당연히 현대미술 전시를 여는 것도, 사진 촬영도 녹록지 않은 이곳이 교토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 중국 작가 허상위(He Xiangyu, 1986~)의 무대가 되었다. 허상위는 아트 컬래버레이션 교토의 개최와 맞물린 기간에 창고를 개조한 갤러린 아르트로(ARTRO)에서 열린 <Hazy Window>라는 전시와 더불어 만슈인에서 펼쳐진 <The Memory of Stillness>를 동시에 선보인 작가이기도 한지라 궁금증이 솟을 수밖에 없었다. 1천2백 년 전도 전에 건립되고 에도 시대에 현재의 장소로 이전했다는 이 사원은 고서적과 그림 등 귀중한 문화재도 다수 소장하고 있는데, 날음 속 범상치 않은 오라가 느껴지는 내부 공간을 거처니 소박하지만 운치 있는 아담한 정원 풍경을 배경으로 한 돌조각들을 맞닥뜨린다. 여러 곳에서 공수한 자연석을 3D 스캐닝으로 만든 금속대에 고정된 작품은 잔잔한 빛을 받아 어색하지 않게 공간에 스며들어 있다.

어쩌면 다소 밋밋한 구성이라고 여겼을 관람객의 설부를 생각을 살며시 꾸짖기라도 하듯, 만슈인이 자랑하는 가레산스이(枯山水, 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크기의 돌과 자갈, 모래만으로 산수를 표현한 일본 정원 양식)의 하얀 정원이 시야에 들어오고, 묘하게 존재감을 뽐내내는 작품이 눈길을 강하게 사로잡는다. 거정에 가까운 어두운 살결에 고개를 살짝 숙인 소년의 모습을 빚어낸 'Asian Boy'라는 작품이다. 자세히 보면 이 소년은 허공 속에서 뭔가를 잡으려는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콜라 캔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작가가 자신의 고향인 라오닝성 외곽의 노동자들과 함께 6만 병의 코카콜라를 끌어 얻은 잔여물을 옛 송나라 스타일의 풍경화를 그리는 데 활용하는 일명 '콜라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어서다. 영어식 이름 표기로 살짝 혼동이 와 처음에는 몰랐는데, 1986년생인 허상위는 한국에서도 의미 있게 소개된 적 있는 개념 미술가로 서구



1 무려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교토의 오래된 사원인 만슈인(曼殊院)에서 지난 가을 중국 작가 허상위(He Xiangyu)의 개인전 <The Memory of Stillness>가 열렸다. 거정에 가까운 어두운 살결에 고개를 살짝 숙인 소년의 모습을 빚어낸 'Asian Boy'라는 작품이 하얀 정원에 놓여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2 날음 속 범상치 않은 오라가 느껴지는 내부에 놓인 허상위 작가의 작품. 3 여러 곳에서 공수한 자연석을 3D 스캐닝으로 만든 금속대에 고정된 작품. 이번 전시의 주화와 운영은 하토리 쇼지 코퍼레이션이 맡았고, 일본 갤러리 스카이 더 배스하우스가 협력했다. ※ 1-3 Photo by Hye Yeon Park



소비문화의 영향을 받은 중국 현대사회의 면면을 보여 주고, 과감한 메시지를 드러내는 작업으로 아이웨이웨이 이의 대를 이을 것으로 기대되는 작가다. 서울 송은에서 지난해 봄 열린, 중국 현대미술의 산증인으로 자리 매김한 스위스 출신의 저명한 컬렉터 울리 지그(Uli Sigg) 소장품 전시에서 소개된 작가들 중 주목을 가장 많이 받기도 했다(홍콩의 노란 우산 혁명을 표현한 평면 작품, 아이웨이웨이로 추정되는 거구의 사내가 엮여 드러 있는 설치 작품 등으로 화제가 됐다). 왠지 모르게 정감 가는 하얀 정원의 적요(寂寥) 속 소년상은 아주 오래 뇌리에 남을 듯하다. 글 고성연

허상위 개인전 <The Memory of Stillness>
 전시 장소 만슈인,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이치조지 다케노우치초 42
 전시 기간 2024년 10월 19일~11월 17일
 홈페이지 https://a-c-k.jp/en/associated-programs/he-xiangyu

지난 11월 초 아트 컬래버레이션 교토(Art Collaboration Kyoto) 기간에 교토의 지역성이 짙게 배어 있는 고택이나 유서 깊은 사찰에서 조우한 현대미술 작품은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마주한 작품보다 더 잔잔하고 오래가는 울림을 줬다. 북적대는 페어의 분위기를 이따금 놀랄 만큼 말끔히 잊게 해주는 장외 전시 특유의 매력이 교토가 품은 호젓한 공간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했다. 자연이 있고, 새소리가 들리며, 꼬끝을 기분 좋게 스치는 바람이 함께했기 때문이리라. 자연 속에 놓인 작품을 응시하다 보면 어느덧 명상과 사색(思索) 모드로 이끌리게 되는 공간 사색(四色)!

자연의 질감을 화폭에 담다, 안드레아스 에릭손_무린안

"직조는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의 작품이 된 것과 같다. 뒤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유령처럼, 물질의 특성, 착시 효과, 구조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시각적 진동. 그리고 흰 캔버스와 원래 캔버스 사이의 경계가 그렇다."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듯 안드레아스 에릭손(Andreas Eriksson, 1975~)의 작품은 자연과 닮았다. 그의 작품은 무엇을 주장하거나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존재함(being)'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특히 캔버스를 감싸는 직조된 천의 질감이 색 안료에 묻혀 사라지는 일반적인 회화와 달리, 그의 회화는 라넌 특유의 질감이 안료에 의해 더 살아난다. 그는 원초적인 질감을 살려 직조해나가듯 마른 붓놀림으로 캔버스와 염료의 관계를 놀라울 정도로 일체감 있게 표현한다. 캔버스의 원시성을 지켜내며, 터펜틴(유화용 보조제)을 사용하지 않고 단단한 브러시로 얇게 칠하는 방식은 그만의 작업 세계를 농밀하게 드러낸다.

그의 회화적 어법은 자연 속에서 이뤄졌다. 1998년 스톡홀름 왕립예술대학을 졸업한 에릭손은 베를린에서 작업하던 중 자신에게 전자기 과민성 증후군(EHS)이 있음을 발견하고, 요양차 도심을 떠나 스웨덴 남부 신네쿨레(Kinnekulle) 숲과 바네른 호수 근처로 이주했다. 에릭손은 자연이 주는 영감 속에서 무의식적이며 우연에 기댄 터치감과 통제되지 않은 손놀림으로 캔버스 앞에서 염료로 대화해나가는 과정을 화폭에 담는다. 교토의 무린안(無



1 Andreas Eriksson, Parrim, 2024. 자연광 속에서 안드레아스 에릭손 고유한 색 터치가 잘 드러나며, 그 질감이 더욱 강조된다. 현대미술과 교토 전통 건축이 평온하게 조화를 이루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2 무린안 정원에서 바라본 전사실, 정원의 섬세한 권리와 양자의 고유함이 에릭손 자신의 예술적 감동과 연결된다. ※ 1, 2 Photo by Hye Yeon Park



鄰菴)에서 마주한 에릭손의 세계는 그곳과 비슷한 진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웃이 없는 임자', 다시 말해 '고요한 정원'으로 해석되는 무린안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오카자키에 위치하는데, 19세기 말 급속한 근대화 시기 저명한 정치인 야마가타 아리토모(1838~1922)가 은퇴한 후 머물 거처로 건축되었다. 정원은 근대 일본 정원의 선구자로 교토시 헤이안 신궁의 정원을 디자인한 오가와 지헤(小川治兵衛)의 손길을 거쳤다. 교토의 사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무린안은 '산책 정원'이라고도 불리는데, 거닐다 보면 발걸음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연못과 나무, 그리고 이끼의 향연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진다. 에릭손의 그림 속에 머물고 싶게 하는 평온함과 같은 결을 지녔다. 글 박해연

안드레아스 에릭손 개인전 <Rakuyou>
 "노이게림슈나이더(Neugerichmschneider) 갤러리
 전시 장소 무린안,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난젠지 구사자와초 31
 전시 기간 2024년 10월 31일~11월 3일
 홈페이지 https://ack.jp/associated-programs/rakuyou

Time of Enchantment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우아한 스타일로 재해석해 늘 감탄을 자아내는 하이 주얼리 & 워치 메종, 반클리프 아펠과 함께하는 꿈의 홀리데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무한한 영감을 주는 자연을 모티브로 주얼리를 탄생시키는 메종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그중에서도 꽃은 메종이 가장 사랑하는 테마다. 이번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메종은 또 한번 새로운 플라워 주얼리를 선보인다. 반클리프 아펠만의 우아한 품격이 담긴 '로즈 드 노엘(Rose de Noel)'이 그 주인공이다. 1970년 탄생한 이 컬렉션은 겨울에 활짝 피어나는 꽃들을 찬란히 그려내 홀리데이의 화려함을 더욱 극대화한다. 또 그레이 머더오브펠, 화이트 골드, 터퀴즈 및 옐로 골드 소재 등 반클리프 아펠이 주얼리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 잼스톤을 향한 취향과 애정이 담겨 있다. 특히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격히 지켜온 선별 과정을 거친 스톤들은 영롱한 컬러감을 뽐내며 꽃잎마다 생동감 넘치는 볼륨과 입체감을 선사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개껍질에서 추출한 유기적 소재인 그레이 머더오브펠은 균일한 컬러와 그린에서 핑크로 이어지며 부드럽게 변하는 무지개빛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터퀴즈는 구리 성분을 풍부히 함유한 암석을 통과한 물로 형성된 소재이며, 블루 컬러의 열고도 강렬하며 다채로운 면모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엄선된 스톤들은 볼륨이 돋보이도록 커팅하고 폴리싱 처리해 광채를 극대화한다. 이후 스톤들은 펜던트에 6개, 이어링에 12개 세트로 매칭되어 일정한 색상을 유지한다. 머더오브펠은 화이트 골드와 매치해 특유의 무지개빛이 돋보이게 했고, 터퀴즈는 태양 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옐로 골드를 매치해 특유의 컬러 광채를 더욱 부각하도록 고안했다. 이 아름다운 컬러 스톤 꽃잎은 6개로 구성되었으며, 서로 다른 높이로 배치되어 움직임 때마다 생동감을 부여하며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꽃 중앙의 암·수술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놀랍다. 암술은 골드 소재의 가는 라인을 사용했고 이 라인들 역시 꽃잎과 마찬가지로 다른 높이와 각도로 배치해 실제 꽃 같은 느낌을 준다. 암술 내부에는 3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중앙에서부터 은은한 광채를 내뿜는다. 반클리프 아펠은 아름다운 플라워 주얼리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D에서 F에 이르는 컬러 등급, IF에서 VVS에 이르는 클리어티 등급 기준으로 최고 품질의 스톤을 엄선

2



1 그레이 머더오브펠에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하고 클립으로도 변형 가능한 로즈 드 노엘 펜던트 스톤.
2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 머더오브펠로 꽃잎을 완성하고 18K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로즈 드 노엘 클립 라지, 푸른 터퀴즈 소재로 이뤄진 꽃 중앙에 18K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드 노엘 클립 스몰, 비드한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라피스 라줄리로 꽃잎을 완성한 로즈 드 노엘 클립 미디엄, 화이트 머더오브펠에 다이아몬드와 옐로 골드로 중앙을 장식한 로즈 드 노엘 클립 미디엄.

해 사용했다. 여기에 반클리프 아펠만의 섬세한 세팅과 서정적 디자인으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미해 메종의 품격을 드러낸다. 이외에도 기존에 사랑받던 플로라 컬렉션의 주얼리부터 뽀폴리, 알함브라뿐 아니라 아티스틱함을 담은 주얼 워치까지. 홀리데이에 반클리프 아펠의 주얼리, 워치와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의 1877-4128 에디터 성정민



3



3 (위부터 차례대로) 18K 화이트 골드에 라운드 및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투 버터플라이 이어링, 라운드 및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투 버터플라이 비트윈 더 핑거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여름 아침의 싱그러움을 다이얼에 표현하고,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머더오브펠과 차보라이트 및 스페르타이트 가넷으로 완성한 레이디 아펠 브리즈 데떼 워치. 4 비대칭 속 유려하게 날아오르는 나비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투 버터플라이 비트윈 더 핑거 링. 5 생동감 넘치는 18K 화이트 골드 나비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투 버터플라이 이어링. 6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게 완성한 소크라테스 이어링,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머더오브펠로 완성한 레이디 아펠 에르 플로렐 워치,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소크라테스 비트윈 더 핑거 링. 7 다이얼에 메종의 상징인 아름다운 플라워를 표현한 레이디 아펠 에르 플로렐 워치.

6





1 (위부터 차례대로)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플라워 모티브를 투명한 레이스처럼 가벼운 느낌으로 표현한 반클리프 아펠의 클래식 하이 주얼리 컬렉션 플라워 레이스 펜던트, 매종에 영감을 주는 자연과 쿠티르가 조화를 이루는 클래식 하이 주얼리 컬렉션 플라워 레이스 링, 2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가볍고 우아한 플라워를 표현한 클래식 하이 주얼리 컬렉션 플라워 레이스 링, 3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플라워를 완성한 클래식 하이 주얼리 컬렉션 플라워 레이스 펜던트.

4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플로레드 이어링, 하이 주얼리의 품격을 새로 정의하는 듯 섬세하게 디자인하고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의 클래식 하이 주얼리 컬렉션 스노우플레이크 네크라스,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반짝임을 부여한 플로레드 링, 5 18K 화이트 골드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아름다운 플라워를 표현한 플로레드 링.



6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활짝 피어난 생기 가득한 꽃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프리블 이어링 스몰, 하트 형태의 꽃잎이 비대칭적으로 놓인 형태가 눈부신 광채와 생동감을 더하는 프리블 비트윈 더 핑거 링,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꽃잎 사이즈가 압도적 존재감을 자랑하는 프리블 클립 펜던트 엑스트라 라지, 7 아름다운 하트 모양 플라워 2송이를 비대칭으로 섬세하게 디자인한 프리블 비트윈 더 핑거 링.



8 컬렉션 최초로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를 더해 탄생한 프리블 링 플라워 8개, 화이트 골드 소재의 3송이 꽃과 로즈 골드 소재의 5송이 꽃이 저마다 다른 높이로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어 생동감과 풍성한 느낌을 전한다. 화이트 골드 꽃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주었다. 프리블 링 플라워 8개, 9 (위부터 차례대로)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로 8개의 아름다운 플라워를 표현한 프리블 링 플라워 8개,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프리블 펜던트 미니, 18K 로즈 골드에 중앙에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하고 꽃잎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프리블 브레이슬릿 미니, 18K 화이트 골드 플라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프리블 브레이슬릿 미니 모두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문의 1877-4128



Get



LORO PIANA
비비드한 벨벳 레드 컬러의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한 백으로 독특한 텍스처와 가벼운 무게감을 선사하며 강렬한 개성을 표출하는 롬 백 L25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The



CHANEL
2024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특별함을 더한 향수 컬렉션, 샤넬 워터 데일 컬렉션이 출시된다. 백에 가법게 수납하거나 숫자 5 모양의 오브제가 달린 체인을 손목에 걸 수 있는 향수 N°5 오 드 페르맹 펄스 스프레이 7ml×3, 30만 9천원, 샤넬, 문의 080-805-9638

List



LOUIS VUITTON
한쪽 면은 시그처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로, 반대쪽 면은 그레이인 가죽 소재로 이루어져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네버폴 인사이드 아웃 MM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당신의 연말을 책임질 스타일 쇼핑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GRAFF
리본을 모티브로 한 메종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으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총 10.71캐럿을 세팅한 그라프 톨다의 보우 컬렉션 멀티 세이프 다이아몬드 네크라스, 역시 리본 모양의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총 3.58캐럿을 세팅한 그라프 톨다의 보우 컬렉션 멀티세이프 다이아몬드 드롭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그라프. 문의 02-2150-2320



HERMÈS
울 소재의 인감으로 촉한기 발을 따스하게 보호해주며 스웨이드 고트 스킨, 카프 스킨 소재에 시어링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저니 앵클부츠 1백94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POMELLATO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96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화이트 골드 카테네 이어링, 고임 모티브로 풍성한 볼륨감을 선사하는 로즈 골드 소재의 카테네 링, 2백68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카테네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BLANCPAIN
메종의 아이코닉한 다이버 워치 감성을 디자인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직경 43.6mm의 블랙 세라믹 케이스가 압도적인 무드를 선사한다. 선버스트 블루 다이얼로 개성을 부여하며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3천만원대 블랑팡. 문의 02-3479-1833



CARTIER
'빈사플 콘셉트로 한 컬렉션 워치로, 볼륨감과 패턴으로 건축적이며 화려한 감성을 전한다. 핑크 골드 케이스에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리플렉션 드 카르띠에 워치 가격 미정 카르띠에.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장민

Timeless Craftsma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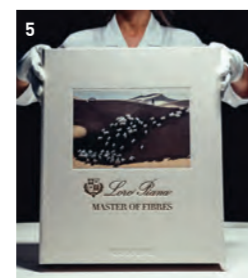
타협하지 않는 품질과 최고의 원자재,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로로피아나의 1백 년 역사와 유산이 완성됐다. 그리고 이토록 탁월한 노하우(savoir-faire), 우아한 매너와 품격(savoir-vivre)을 결합해 아이콘(Icon) 컬렉션이라는 걸작을 선보인다.



탁월한 노하우로 이어간 1백 년

로로피아나의 역사는 1924년부터 오로지 최상의 품질을 위한 열정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수 세기 동안 양털을 자아서 팔며 살았던 양치기들의 고향인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Piedmonte)에 20세기 초, 기술 발전과 함께 현대적인 기계식 방적 공장이 등장했다. 그 중 하나는 1800년대 중반에 직물 상인에서 양모 사업가로 변신한 할아버지 지오바니 로로피아나(Giovanni Loro Piana)와 아버지 지아코모 로로피아나(Giacomo Loro Piana)의 열정을 물려받은 피에트로 로로피아나(Pietro Loro Piana)가 1924년에 문을 열었다. 피에트로의 젊은 조카 프랑코(Franco)는 1930년대 초에 그와 함께하며 이후 회사 경영권을 이어받게 된다. 1970년대에 프랑코 로로피아나는 더 가볍고 고운 원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성직자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한 유형의 양모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호주 남부 태즈메이니아(Tasmania)섬에서 사육한 양에서 얻은 이 양모는 프랑코가 1979년에 발견한 양모다. 이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태즈메이니아 원단을 탄생시킨 획기적인 업적으로 남았다. 그리고 1980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자 두 아들, 세르지오와 피에르 루이지 로로피아나가 이어받았다. 로로피아나에서 엔지니어링 부문을 담당하던 피에르 루이지 로로피아나는 몽골을 여행하면서 내몽골의 염소 목동들에게 새끼 염소가 한 살이 되기 전에 빗질해

“로로피아나는 1924년부터 최상의 품질과 특별함에 대한 열정으로 1백 년의 역사와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원재료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장인들의 손길로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낸다”



솜털 같은 섬유를 따로 모아두도록 설득했다. 그 결과 2008년, 최고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베이비 캐시미어(Baby Cashmere)라는 원단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어 그는 사육자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소량의 솜털을 따로 모아두기 위해 10년을 투자했으며, 결국 베이비 캐시미어를 세계에서 가장 독점적인 섬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버터처럼 부드럽고 매우가는 베이비 캐시미어는 염소 한 마리에서 오직 30g 이하의 섬유만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 평균 13.5미크론의 비할 데 없는 부드러움과 가벼움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또 메종은 동물 복지를 우선시하는데, 특히 페루에 서식하는 비쿠냐(Vicuña)의 자연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덕분에 1998년부터 현재까지 비쿠냐의 개체 수는 2배 이상 증가했고, 2008년부터 로로피아나는 프랑코 로로피아나 개인 소유지(Franco Loro Piana Private Property)라는 자연 구역을 소유하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해왔다. 그 결과 로로피아나만이 구현할 수 있는 비쿠냐의 황금빛 색조와 마법 같은 부드러움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어 2015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급되는 초극세 메리노 양모인 최고급 울, 더 기프트 오브 킹스®(The Gift of Kings®)를 출시했다. 평균 직경 12미크론인 로로피아나의 독점 양모는 깃털처럼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나며 유동적이고 제2의 피부처럼 편안하다. 메리노 양은 1773년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이 뉴질랜드에 처음 도입했고, 1797년에 호주에 도착해 이상적인 조건에서 번성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현지 사육자들이 세심하게 관리한 덕에 양모의 품질과 섬도는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어, 더 기프트 오브 킹스® 원사와 원단은 자연스러운 신축성과 유동성을 갖추었다. 이토록 탁월한 섬유 공학과 장인 정신이 결합해 오늘날의 로로피아나는 최고의 섬유 메종으로서 1백 년이란 세월 동안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1백 년 역사와 헤리티지를 기념해, 비전 있는 기업가 가문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은 책 <Master of Fibres>를 출간했다. 니콜라스 폴크스(Nicholas Foulkes)가 집필하고 애슬린(Assouline)에서 출판한 이 책에는 6대째 이어져 내려온 로로피아나의 탁월함과 노하우, 그리고 비범함을 향한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11월 21일부터 전 세계 일부 로로피아나 부티크와 애슬린 스토어 및 Assouline.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런던의 고급 백화점 해러즈(Harrods)에서 홀리데이 시즌의 방법을 시작한다. 브롬턴 로드(Brompton Road)의 파사드, 36개의 윈도, 그리고 두 곳의 팝업 쇼케이스에 설치된 놀라운 작품들은 비교 불가한 디테일과 소재로 메종의 유산과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해러즈 백화점에서만 독점으로 개최되는 남성 및 여성 RTW 컬렉션을 공개할 예정이며 11월 7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진행된다.

1 내몽골의 염소 목동들이 새끼 염소가 한 살이 되기 전에 빗질해 얻은 솜털 같은 섬유로 완성한 베이비 캐시미어. 2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급되는 초극세 메리노 양모인 최고급 울, 더 기프트 오브 킹스®. 3 비쿠냐 울의 황금빛 색조와 최고의 부드러움이 더해진 로로피아나의 의류. 4 로로피아나 최고의 섬유와 관련된 정소와 커뮤니티를 배경으로 경이로운 이야기를 엮어낸 해러즈의 윈도 디스플레이. 5 1백 년 역사와 헤리티지를 기념해 출판된 <Master of Fibres>. 6 활용성, 경량성, 보온성, 방풍성을 자랑하는 로드스터. 7 스기어의 요구를 반영해 보온성을 위한 디테일을 가미한 아이서. 8 웨이스트 스트링과 여러 개의 다용도 포켓이 있어 출장과 여행이 잦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트래블러.

우아한 품격으로 지은 옷

1990년 후반, 세르지오 로로피아나의 놀라운 스타일과 우아함에 대한 직관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갈망했고, 피에르 루이지 로로피아나가 주도한 기술 혁신이 이를 뒷받침하며 탁월한 노하우를 구현할 수 있었다. 또 로로피아나 페밀리는 세일링, 승마, 클래식카, 스키 같은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이와 관련된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에 영감을 받아 매너와 품격을 보여주는 아이콘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안목 높은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든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기 위해 장인의 손길로 완성한 편안함, 활용성, 그리고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신경 썼다. 무엇보다 메종 고유의 실루엣과 균형 잡힌 볼륨감으로 완벽한 스타일, 편안함, 기능성을 갖추었다. 이 컬렉션에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탈리아 승마 팀을 위해 만든 로로피아나의 아우터웨어 호서®(Horsey®), 혁신적인 스톱 시스템®을 통해 방수성과 방풍성을 지닌 캐시미어 스키 재킷인 아이서(Icer), 1996년에 첫선을 보인, 카디건처럼 부드럽고 단정하며 편안한 정장으로 착용할 수 있는 스파냐 재킷(Spagna Jacket), 세일링을 향한 사랑으로 2003년에 탄생시킨 보머(Bomber), 드라이빙용으로 디자인한 로드스터(Roadster),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안한 오버 재킷인 보야저(Voyager), 웨이스트 스트링과 여러 개의 다용도 포켓이 있어 최고의 여행 동반자가 되어줄 트래블러(Traveller), 활용성이



좋고 편안한 폴로 오픈(Polo Open), 캐시미어 천 조각의 테두리를 긴 스카프르 절묘하게 재단해 완성한 그란데 유니타(Grande Unita), 절제된 디자인이 특징인 안드레 셔츠(André Shirt), 세일링에서 영감을 받은 화이트솔(White Sole), 밴드가 달린 클래식한 모카신인 세르지오 워크 로퍼(Sergio Walk Loafers)가 있다. 기능성과 활용성을 아우르는 아이콘 컬렉션의 디자인은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데일리 룩은 물론, 클래식한 멋을 드러내는 포멀한 스타일링에도 조화를 이룬다. 문의 02-6200-7799 에디터 윤자경



For Your Wish

영원한 선망의 대상이자 갖고 싶은 이름, 샤넬의 화인 주얼리와 워치.



1

2



3

4

1 (왼쪽부터)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꼬메트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켈링 모티브의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의 이터널 N°5 브레이슬릿, 2 (왼쪽부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로 이루어진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3 (왼쪽부터) 18K 베이지 골드로 이루어진 코코 크러쉬 스몰 링,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스몰 링, 4 18K 베이지 골드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을 더한 이터널 N°5 링.



1

1 견고한 블랙 세라믹에 18K 옐로 골드 라이닝으로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감성을 더한 J12 워치 칼리버 12.1 38mm. 2 견고한 화이트 세라믹과 스틸 소재 케이스를 장착하고, 베젤과 인디케이터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래커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12개를, 베젤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6개를 세팅해 우아함을 부여한 J12 다이아몬드 베젤 워치 칼리버 12.1 38mm.

이 아름다운 피스들을 보노라면 올 연말이 더욱 기다려진다. 그 어떤 워치 주얼리보다 아이코닉하고 상징적인 샤넬 화인 주얼리 & 워치 컬렉션이 그 주인공이다. 샤넬은 그동안 우아하고 당당한 여성들을 위한 다채로운 주얼리와 워치 컬렉션을 내놓았지만 올 연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물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 빠진 이들을 위해 세 가지 컬렉션을 꼽았다. 먼저 샤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숫자 5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N°5 컬렉션이다.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로 숫자 5를 완성하고 그 실루엣을 따라 영원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가 흐르며 가브리엘 샤넬의 우아함을 표현한다. 특히 적당한 볼륨감과 수려한 반짝임을 홀리데이 무드와 그 어느 것보다 잘 어울린다. 연말에 적합한 글램 무드와 특별함을 원한다면 단연 N°5 컬렉션이 돋보일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름까지 사랑스러운 코코 크러쉬 컬렉션이다. 강렬하면서 섬세하고 심플하면서 밀도 높으며, 부드러운 동시에 예지까지 더해 단독으로 착용해도 임팩트를 주고 여러 개를 레이어드할수록 멋스러워진다. 단연 샤넬의 아이코닉 주얼리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또 선망의 대상이자 도달적이며 예상을 뛰어넘는 가브리엘 샤넬의 인생과 그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바꾼 만남을 이야기하는 컬렉션이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로 제격이다. 마지막으로 모던하고 클래식한 감성을 잘 표현한 혁신적인 J12 워치 컬렉션을 추천한다. 샤넬 최초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12.2를 장착해 2022년 출시한 워치 컬렉션으로 샤넬의 워치메이킹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제품이라 더욱 의미 깊다. 이 클래식하고 아이코닉한 디자인은 샤넬 워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의 디렉터 아르노 샤스탱(Arnaud Chastaing)이 디자인했으며, 샤넬 워치메이킹 매뉴팩처 장인들이 제작했다. 샤넬 공동 소유의 스위스 매뉴팩처 케니시(Kenissi)에서 제작한 칼리버 12.2의 모든 부품은 샤넬의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위해 사이즈를 알맞게 조정했으며 샤넬 워치메이킹의 상징인 완벽한 원 형태의 오실레이팅 웨이트로 장식했다. 무브먼트는 COSC(스위스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 기관)의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으며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췄다. 올해는 다이얼과 베젤을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제품과 은은한 골드 라이닝을 더해 고급스러움을 배가한 제품을 출시해 선택지를 넓혔다. 어떤 컬렉션을 선택하든 샤넬 화인 주얼리 & 워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2



1

2

1 (왼쪽부터) 18K 베이지 골드로 이루어진 코코 크래쉬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1개로 포인트를 준 코코 크래쉬 브레이슬릿, 아이코닉한 C자 형태 베이지 골드로 완성한 코코 크래쉬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래쉬 브레이슬릿. 2 아이코닉한 까멜리아 플라워 형태의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게 완성한 까멜리아 링. 3 사철의 또 하나의 모티브인 별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표현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 고포메 링. 4 18K 옐로 골드 링 2개, 화이트 골드 소재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나뭇잎 형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독특한 연출을 돕는 플럼 드 사철 링.



1

1 (위부터) 아이코닉한 숫자 5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이터널 N'5 네크리스, 18K 옐로 골드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엑스트레 드 N'5 네크리스. 2 드롭형 다이아몬드 장식이 모던하면서도 우아함을 더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이터널 N'5 네크리스. 3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드롭형 장식이 화려함을 부각하는 이터널 N'5 네크리스. 모두 사철 워치 & 화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정민



3



4



2



3

holiday

(왼쪽부터 차례대로) 식중식물이 앞을 한껏 펼친 모습을 모티브로 완성한 다이아몬드 세팅 18K 화이트 골드 디자인 다이아몬드 링 가격 미정 **타사키** 02-3461-5558. 리버서블 디자인의 메달로 한 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다른 한 면에는 핑크 사파이어를 가미해 그래픽이션을 표현한 18K 핑크 골드 소재의 에듀왈 드 방 메달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볼드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포인트 주얼리 역할을 해주는, 에메랄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마르케리타 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02-515-1924. 섬세한 물결 패턴으로 부드럽게 일렁이는 파도를 표현했다. 8개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와 1백20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프레셔스 레이스 링 3천4백5만원 **소피드** 02-6909-3390. 청량함을 부여하는 페어 세이프의 투르말린을 세팅해 눈길을 사로잡는 동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18K 로즈 골드 소재가 조화를 이룬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1천1백50만원 **불가리** 02-6105-2120. 빛을 포착하고 반사시키기 위해 미려 폴리싱 처리한 18K 로즈 골드가 화려함을 선사하며, 총 3.5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 마이 러브 이어링 4천만원대 **쇼메** 02-1670-1180.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돋보이며 총 1.18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라프 와일드 플라워 컬렉션 파베 다이아몬드 밴글 가격 미정 **그라프** 02-2150-2320.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실을 상징하는 꿀벌을 현대적 감성으로 담아냈다. 총 0.94캐럿의 13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 소재의 비 마이 러브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쇼메** 02-1670-1180. 신비스러운 색감을 지닌 7캐럿의 프래지올라이트 원석과 58개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누도 클래식 링 가격 미정 **포멜라토** 02-3143-9486. 클래식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미모사 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02-515-1924. 강렬한 무드를 풍기는 페어 컷 로돌라이트 가넷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손 인 마이 사이드 페어드롬 링 가격 미정 **스티븐 헬스터** 02-2231-1592.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을 선사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샤벨 화인 주얼리** 080-805-9628. 총 2.27캐럿의 오벌 에메랄드를 중심으로 총 5.56캐럿의 3백40개 라운드 에메랄드를 세팅해 대담한 디자인이 시선을 끄는 이모션 링 가격 미정 **피베르제** 02-3442-4706. 심플한 라인으로 도시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총 4.08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T1 와이드 다이아몬드 한지드 밴글 가격 미정 **티파니** 1670-1837.

GIFT GUIDE

낭만과 설렘으로 가득한 연말, 당신과 연인, 소중한 이들을 위한 위시 리스트.

(위부터 차례대로)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초경량 고반사 메탈인 루센트 스틸™ 케이스에 특별함을 담은 핑크 컬러 다이얼을 매치해 개성 있는 연출을 돕는 알파인 이글 41mm 2천7백만원대 쇼퍼드 02-6905-3390. 메종의 하스트리를 반영하는 다이버 워치의 감성을 가득 담은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지름 43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을 매치한 피프티 퍼센트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패이즈 4천8백만원대 블랑팡 02-3479-1833. 프루스티드 골드 마감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크리스탈 샌드 마감의 다이얼이 독특한 빛과 질감을 더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로열 오크 프루스티드 골드 셀프와인딩 9천 63만원 오데마 피게 02-533-1351. 항공 워치의 요소를 지닌 모던한 스틸 케이스에 그라데이션 그린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아이코닉한 각면 합성 블루 스피들을 세련한 크라운으로 포인트를 더한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1천1백만원대 까르띠에 1877-4326. 균형 있는 원형 케이스가 클래식한 매력을 자랑하며 스틸과 옐로 골드의 조화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배가하는 드 빌 프레스티지 41MM 1천4백만원대 오메가 02-6905-3301. 메종의 아이코닉한 스타일로 사랑받는 플로 필드 워치.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에 그린 에메랄드 다이얼을 매치해 특별함을 더했다. 2천1백만원 피아제 1668-1874. 1950년대 워치에서 영감을 받은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블랙 다이얼의 조화가 멋스러운 피프티스스 셀프 와인딩 3천7백 80만원 바세론 콘스탄틴 1877-4306.



브랜드의 오랜 여성 시계 제조 노하우의 집결체인 레이디버드(Ladybird) 컬렉션 워치로 생동감을 주는 무지갯빛 멀티컬러 인텍스와 아이코닉함 문패이즈가 돋보인다. 직경 34.9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으며 화이트 외에도 핑크·다크 블루·그린·옐로 등 다섯 가지 컬러의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세트로 제공한다. 다채로운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레이디버드 컬러드 문패이즈 5천8백만원대 블랑팡. 문의 02-3479-1833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찔한 포인티드 토 디자인이 예자를 더하는 스트랩 필프스 가격 미정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1577-8841, 수작업으로 장식한 골드와 실버 컬러의 칼라 크리스털 (Calla Crystals)이 화려한 멋을 더하며 아이콘적인 벨 머리 프레스 버트 짐금장치가 특징인 세르펜티 포에버 미니 탑 **헨들** 백 8백40만원 **불가리** 02-6105-2120, 볼드한 실루엣이 파티 룩에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줄 포에티코 데 구프 이어링 2백50만원 **발렌티노** 02-2015-4655,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를 입은 양가죽 소재의 미니 캘리 셀리에 백 가격 미정 **에르메스** 02-542-6622, 하우스의 전통적인 트렁크와 여행 가방의 결명 디테일을 연상시키는 다이아몬드 디자인이 특징이며, 골드 및 실버 색상으로 마감한 금속 소재의 LV 알타주 팔찌 가격 미정 **루이 비통** 02-3432-1854, 다채로운 컬러와 사이즈의 스텝글로 섬세하면서도 대범한 디테일을 가미한 슈즈 가격 미정 **틀체인가버나** 02-3442-6888, 라미네이팅 처리한 가죽으로 제작했으며, 동전 주조 기법을 활용한 앙가 하우스 로고와 패가수스 심벌 메달리온 디테일이 돋보이는 미니 라미네이팅 벨라 백 실버 3백35만원 **에트로** 02-3446-1321, 리본 모양의 짐금장치가 사랑스러운 무드를 배가하며, 한 손에 들었을 때 드레스 룩에 한 포인트가 되는 실버 라인식 보우 클러치 68만원 **셀프 포트레이트** 02-6911-0836.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린과 캐럴 컬러의 조합으로 캐주얼한 무드를 배가하는 소가죽 소재의 럭셔리 보스턴백 2백58만원 **스테파노 마노 by 폴라온지**, 감각적인 패턴으로 짜여 있으며 포근한 느낌을 선사하는 캐시미어 머플러 66만8천원 **피아센자 by 폴라온지**, 고급스러운 텍스처가 특징이며, 수공예로 완성한 황소 볼 소재의 밧 7만5천원 **에비 혼 by 폴라온지**, 은은한 광으로 고급스러움을 배가하고 끝에 스트랩이 있어 편리성이 돋보이는 소볼 소재의 구둣주걱 9만5천원 **에비 혼 by 폴라온지**.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넓은 수납공간을 자랑하며 소가죽 소재로 제작한 남성 슬더백 95만5천원 **스테파노 마노 by 폴라온지**, 은은한 핑크 계열의 진주로 제작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진주 체인 S 85만5천원 **해튼 램프 by 폴라온지**, 영한 무드를 주는 아쿠아 컬러의 체크 패턴으로 어떤 룩에도 포인트가 되어주는 캐시미어 머플러 95만8천원 **베그 앤 코 by 폴라온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러운 소가죽 소재로 완성했으며 스카이 블루 컬러가 경쾌한 분위기를 배가하는 남성 스몰 백 52만5천원 **스테파노 마노 by 폴라온지**, 양가죽 소재와 캐시미어 라이닝의 남성 소가죽 장갑 28만5천원 **메롤라 by 폴라온지**, 캐시미어 소재로 보온성을 자랑하는 남성 캐시미어 장갑 23만5천원 **메롤라 by 폴라온지**, 스카이 블루, 네이비, 화이트, 브라운 등 네 가지 컬러의 실을 꼬아 유니크한 무드를 선사하는 남성 엘라스틱 워빙 벨트 21만8천원 **앤더슨즈 by 폴라온지**.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패셔너블한 라벤더 컬러의 소가죽으로 완성했으며 고급스러운 버클 장식이 포인트인 남성 클러치 72만5천원 **스테파노 마노 by 폴라온지**,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사이즈의 소가죽 소재로 카드 지갑 17만8천원 **히로안 by 폴라온지**, 은은하게 빛나는 스텝링 실버 소재로, 열은 핑크 컬러의 데이지 모양 큐빅이 반복되어 귀여움을 자아내는 스텝링 실버 데이지 팔찌 89만8천원 **해튼 램프 by 폴라온지**, 스텝링 실버 소재와 데이지 모양의 큐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스텝링 실버 데이지 테니스 팔찌 S 69만8천원 **해튼 램프 by 폴라온지**, 문의 02-3438-6142

FOURM LOUNGE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핑크와 골드를 테마로 특별하게 완성한 2024 홀리데이 리미티드 아이 투 치크 04 스위트 레벨, 빈티지한 로지 코럴 컬러가 그윽하고 감이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3.6g 9만8천원대 발렌티노 뷰티 080-835-0074, 버버리 패션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골드 패키지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한층 강화된 포털러와 기능으로 아찔한 볼륨을 완성해주는 비온드 볼륨 마스크라 8ml 5만2천원 버버리 뷰티 080-850-0708, 피에트로 루포가 로열 스타일 코드에서 영감받아 디자인한 쿠튀르 로열 모티브 장식의 2024 홀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 다올 포에버 쿠션 케이스 4만4천원대 다올 080-342-9500, 에이옥시놀™, 볼케나스트™ 성분이 피부에 항산화 효과를 전달하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해 노화 속도를 늦추는 A.O. 리부트 앤 리뉴 더블 컨센트레이트 40ml 19만8천원 에이피 뷰티 080-023-5454, 홀리데이 무드를 물씬 풍기는 골드와 레드 패키지가 인상적인 맥의 2024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러 컬렉션 기프트 오브 골드 프로스트 피니시 립스틱 #리갈 레드 3g 3만8천원 맥 1644-3748, 브랜드 창립 30주년을 맞아 화려하게 탄생한 24캐럿 골드 컬렉션 퓨어 럭셔리 라이트 리플렉팅™ 치크 & 아이 팔레트 1 팔레트 4.2g×2, 3g×3 8만3천원 나스 080-564-7700, 사벨의 시그너처 컬러인 베이지 골드가 담긴 보디 오일로 N°5의 관능적인 향기를 즐길 수 있는 N°5 베쥬 골드 바디 오일 250ml 15만6천원 사벨 080-805-9638, 독특한 컬러감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편안함과 세련된 느낌을 선사하는 르 루즈 앵데르디 인텐스 실크 N502 XMAS 24 3.4g 5만9천원 지방시 뷰티 080-801-9500.



아시아트 김보민

GIVENCHY BEAUTY



(위부터 차례로) 부드러운 샴페인 베이지와 맑은 진주빛 컬러가 고급스러운 광채 피부를 연출해주는, 빛나는 4G 로고가 새겨진 리미티드 패키지로 선보이는 프리즘 리브르 하이라이터 N14 XMAS 24 6g, 7만4천원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제품이자 한국 No.1* 컬러 코렉팅 파우더의 2024 홀리데이 에디션, 프리즘 리브르 파우더 N01 XMAS 24 10g 9만3천원대, 별이 빛나는 파리의 밤을 담아 반짝이는 크리스탈로 장식한 2024년 지방시 뷰티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르 루즈 앵데르디 인텐스 실크 N306 XMAS 24 3.4g 5만9천원대 모두 지방시 뷰티. 문의 080-801-9500

*Beaute Research 2024 Q3 YTD 루즈 파우더 매출액 기준 판매 1위.

Savoir Rêver 2024 in Jeju

루이 비통과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그 럭셔리함과 창의성이 집약된 '사보아 레베 2024'가 제주에서 열렸다. 낮과 밤을 아우르는 이 근사한 이벤트는 삶과 예술,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지며 루이 비통의 특별한 여정을 경험하기에 충분했다.



1

럭셔리 그 이상의 가치, 사보아 레베

루이 비통의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선보이는 '사보아 레베(Savoir Rêver)' 행사가 202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JW 메리어트 제주 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상상력과 예술적 전문성을 결합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며, 루이 비통의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다. 공예의 혁신적 미학을 라이프스타일과 결합해 럭셔리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보아 레베. 이번 행사 역시 창의적인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역시 루이 비통'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루이 비통의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 하드 사이드 러기지, 이그조틱, 하이 위치와 하이 주얼리 컬렉션 등을 제주를 주제로 한 다양



“루이 비통은 사보아 레베를 통해 가구에서 하이 주얼리까지, 메종의 예술 정신과 혁신적 디자인이 담긴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여 매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테마의 공간에서 럭셔리한 삶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 테마의 공간에 전시해 마치 거대한 저택에 초대받은 듯 우아하고 럭셔리한 삶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주의 낮과 밤에서 영감을 받은 총 5개의 테마 살롱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듯한 라이프스타일 제안은 루이 비통이라는 이 거대한 패션 메종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었다. 특히 1854년 가방 제조로 시작해 1백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명성을 유지한 루이 비통답게 다양한 트렁크를 주제로 한 코너별 공간 데커레이션이 눈길을 끌었는데, 하이 주얼리를 보관하는 파티 트렁크, 와인 애호가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는 와인 트렁크, 삼나무를 사용해 신선하게 시가를 보관할 수 있는 트렁크까지, 하우스의 유서 깊은 노하우를 극대화하고, 아름다움은 물론 실용성까지 높인 트렁크를 선보여 트렁크라는 모티프를 이용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했다.



2



3

남다른 혁신과 창의성에 매료되다

여성들의 발길을 더욱 오래 머물게 했던 곳은 이그조틱 백 컬렉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 우아하고 쾌적한 공간에 전시된 이국적인 무드의 유니크한 가죽으로 만든 루이 비통의 이그조틱 백들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컬러와 희귀한 가죽의 결합으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백'에 대한 로망을 완벽하게 실현했다. 이 이그조틱 백들은 루이 비통 장인의 노하우가 돋보이는 컬렉션으로, 루이 비통의 대표적인 모델인 카핀, 피피드 말, 로즈레방, 시티스티머 등의 가방을 특수 가죽과 퍼로 제작해 선보였는데, 매 시즌 새로운 컬러의 조합, 시즌별 소재, 여러 종류의 믹스 & 매치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지는 룩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크로커다일, 오스트리치, 리자드 등의 다양한 가죽과 퍼로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가방을 새로운 기법, 디테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제작해, 고객들에게 럭셔리 백에 대한 인식을 몇 단계 더 높여주는 듯한 느낌이다. 루이 비통의 하이 주얼리와 워치 역시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1 루이 비통 장인의 독보적인 노하우가 돋보이는 컬렉션인 루이 비통 이그조틱 컬렉션 전시장. 희귀한 레더뿐만 아니라 오로지 루이 비통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니크한 컬러의 백들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2 해변 커버, 핏용품, 파티션, 침대 등 일상생활 구성구석에서 루이 비통과 함께하는 드림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3 보는 순간 탄성을 자아낸 핑크색 내부의 퍼품 트렁크. 여성들의 로망을 현실로 옮겨놓는 듯하다. 4 제주 사보아 레베 2024의 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송학도 트렁크 타워. 제주의 현무암과 어우러진 한국적인 목조 건축물과 함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5 우아한 여성들을 위한 낮의 풍경. 마르셀 반더루스 스튜디오의 페탈 체어, 자넬라토/보르토토의 베스킷 테이블 등 예술품 같은 가구들과 루이 비통의 트렁크가 어우러진 럭셔리한 룸을 연출했다. 6 원하는 가죽과 색상으로 정인 정신이 집약된 나만의 이그조틱 컬렉션을 완성할 수 있다.



4

디자인으로 루이 비통의 더욱 확장된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제주의 자연을 담아낸 송학도 트렁크 타워에서 시작해 제주의 낮(Jeju by Day)과 제주의 밤(Jeju by Night)을 거쳐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의 이그조틱, 하이 위치메이킹과 하이 주얼리를 만나볼 수 있는 살롱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 '사보아 레베 2024 in 제주.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빌 벤슬리(Bill Bensley)의 제주의 바람, 돌을 쪼은,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건축물과 어우러진 이 이벤트는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우아한 라이프스타일과 완벽한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으로 오레도록 기억될 듯하다. 제주 현지 취재



5



6

Aesthetics of Design

1백50여 년 전 여행 가방 제조업으로 시작한 루이 비통이 헤리티지를 이어받아 새로운 디자인의 침대 트렁크를 공개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예술적 비전과 루이 비통 장인의 창조적 기술의 조화로 탄생한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을 소개한다. 이 모든 것에서 '여행 예술(Art of Travel)'이라는 공통된 철학을 배경으로 한 소재의 아름다움과 유연성, 형태의 기능성, 장인 정신의 정교함을 엿볼 수 있다.



- 1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완성한 베드 트렁크. 2018 S/S 컬렉션 재킷과 유사한 꽃무늬로 장식한 매트리스가 로맨틱한 무드를 자아낸다.
- 2 1872년 사용했던 전설적인 캔버스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의 줄무늬 패턴이 특징인 파렐 윌리엄스 베드 트렁크.
- 3 브라질 민속 신화 속 신비로운 존재들을 모티브로 재해석해 선보인 여섯 가지 오브제 노마드의 코콘. 4, 5 장인 정신으로 스펡글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모습.

하우스의 여행 철학을 담아내다

루이 비통의 여성 컬렉션 아티스트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Nicolas Ghesquière)와 남성 컬렉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가 협업해 하우스의 상징적인 침대 트렁크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침대 트렁크는 1854년부터 이어온 전통과 장인 정신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메종의 역사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니콜라 제스키에르만의 새로운 해석을 가미한 침대 트렁크의 외부는 2023년 크루즈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금속판과 현대적인 모서리 장식을 적용했고, 이는 디스토파아적 우주 영역을 연상시킨다. 반면 트렁크 내부는 로맨틱한 터치를 담고 있다. 매트리스는 2018 S/S 컬렉션의 재킷과 유사한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이 꽃무늬는 침대 디자인에 로맨틱한 감성을 더하며, 트렁크를 열 때 기분 좋은 반전을 선사한다. 또 파렐 윌리엄스는 역

사적인 침대 트렁크 중 하나에서 영감을 받아 상징적인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재창조했다. 1872년 사용했던 전설적인 캔버스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의 줄무늬 패턴을 외부에 적용했고, 내부에는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를 배치했다. 자카드 매트리스와 베게에는 'LV Lovers' 자수가 새겨져 있으며, 블론드-우드 소재는 검은색 알루미늄 하드웨어와 인상적인 색감의 대조를 이룬다. 역사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해 컬렉터를 위한 유니크한 아이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스튜디오 캄파나를 기념하며

2012년부터 시작된 루이 비통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의 다수 작품을 선보여온 스튜디오 캄파나가 올해로 탄생 40주년을 맞이했다. 루이 비통은 2024 디자인 마이애미 파리의 공식 파트너로서 LV 드림(LV Dream) 공간에서 스튜디오 캄파나의 작업을 기념하고 루이 비통 아파르트먼트

(Louis Vuitton Apartment)를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를 개최했다. 특히 브라질 디자이너 움베르토 캄파나는 이번 전시를 기념해 코콘 체어를 브라질 민속 신화 속 신비로운 존재들을 모티브로 재해석해 여섯 가지 맞춤형 작품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우아함으로 가득한 코콘은 땅 위와 물속, 자연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탄생했다. 또 그는 이 특별한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가죽 시퀸, 깃털, 비즈, 금색 자수 등 다채로운 소재를 사용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호화스러운 질감을 탐험한다. 다양한 작품 중에는 1만천 개 이상의 황동 스티드와 구리 코일로 장식된 하시(Jaci)를 포함한다. 북부 브라질 민속의 신비로운 인물에서 영감을 받은 코콘 꾸뛰르 마틴타(Matinta)는 깃털을 하나씩 선별하고, 수작업으로 다듬은 후 비늘처럼 겹쳐 신비로운 장식으로 탄생시켰다. 코콘 꾸뛰르 쿠루피라(Curupira)는 6명의 장인이 에나멜 처리한 보석을 수작업으로 수놓으며, 인도 크로세로 4만 개 이상의 스펡글을 덧붙여 4주 이상 작업에 완성했다. 코콘 꾸뛰르 이아라(Iara)는 흐르는 액체를 연상시키기 위해 4천 개 이상의 유리로 이루어진 튜브 형태의 작은 비즈를 정교하게 바느질한 자카드 패치워크가 특징이다. 코콘 꾸뛰르 보이우나(Boiuna)는 10명의 장인이 가죽 스펡글을 손으로 직접 잘라내고 형태를 만들며, 각각의 스펡글을 무지갯빛 비늘처럼 하나하나 배치해 완성했다. 코콘 꾸뛰르 보토(Boto)는 인도의 자수 공방인 바스트라칼라(Vastrakala)에서 이 작품에 사용된 모피 위로 메탈릭 금 자수 장식을 작업했다. 고대와 혁신적인 기술에 능숙한 이 뛰어난 장인들은 각 코콘을 전설로 만들고, 우수성과 더불어 꿈과 감각적인 즐거움을 불어넣은 움베르토 캄파나의 비전을 담아냈다. 문의 02-3432-1854 에디터 윤자경



페탈(Petal) 체어
디자이너 마르셀 반터스 스튜디오가 우아하게 구상한 9개의 쿠션에 편안하고 풍부한 크림 컬러의 가죽을 덧씌워 민개한 꽃을 닮았다.



Objets Noma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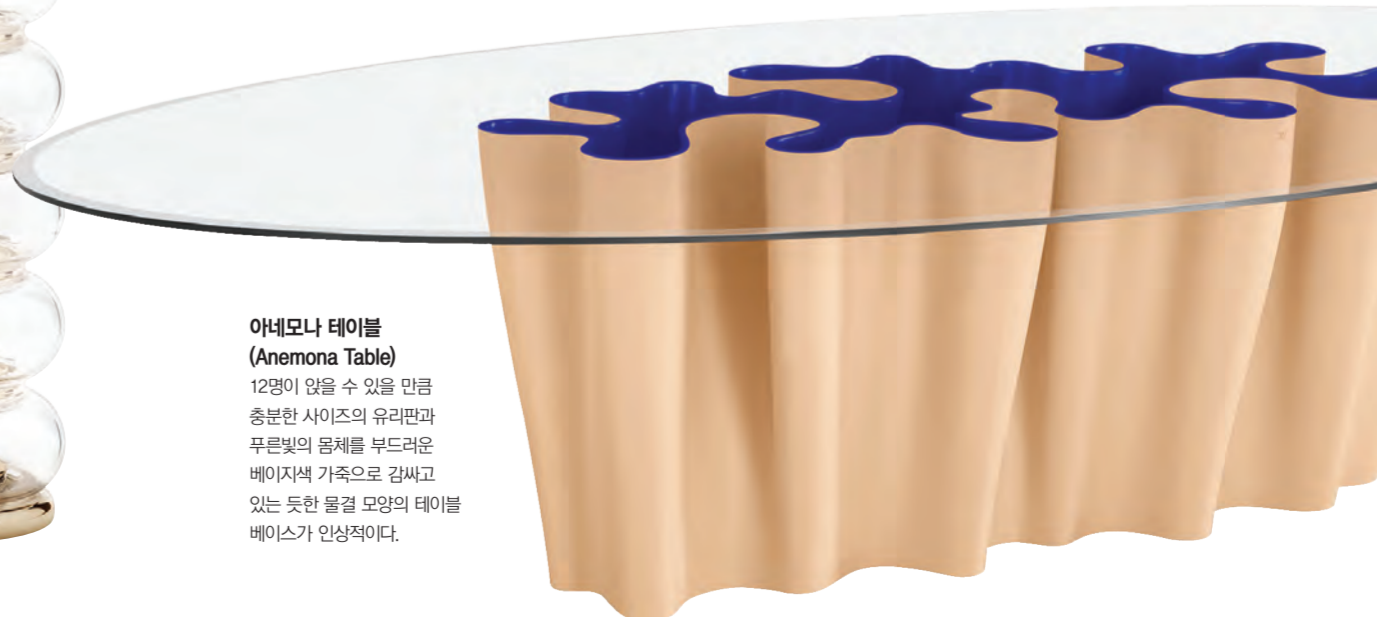
메종의 오랜 철학이자 핵심 가치인 '여행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정판 가구 컬렉션 오브제 노마드를 소개한다.

플라워 타워(Flower Tower)
아틀리에 비아게티의 플라워 타워는 일렁이듯 빛나는 반짝임을 선사하는 이탈리아 유리로 완성했다. 상징적인 모노그램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 꽃 모양 버블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항상 루이 비통이 공예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마르셀 반터스 스튜디오



코콘(Cocoon)
서핑 보드에 쓰이는 소재인 진공 성형 섬유 유리에 섬세하게 구멍을 낸 뒤 외부는 카프 스킨으로, 내부는 월딩 레더로 완성했다. 앉았을 때 부드럽게 흔들려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아네모나 테이블 (Anemona Table)
12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이즈의 유리판과 푸른빛의 몸체를 부드러운 베이저색 가죽으로 감싸고 있는 듯한 물결 모양의 테이블 베이스가 인상적이다.

Forward to Innovation

스위스 하이 주얼리·워치 명가 쇼파드(Chopard), 1860년에 탄생해 무려 1백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혁신과 장인 정신으로 일궈온 몇 안 되는 워치·주얼리 메이커다. 최근 갤러리아백화점 매장의 리오프닝을 축하하기 위해 쇼파드 공동 대표 캄-프리드리히 슈펠레의 딸이자 쇼파드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캐롤라인 마리 슈펠레(Caroline Marie Scheufele)가 방한했다. 그녀에게 쇼파드에서 일하는 즐거움과 쇼파드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Style Chosun(이하 S) 쇼파드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고, 주 업무는 무엇인가요?

Caroline Marie Scheufele(이하 C) 쇼파드 프로덕트 매니저로 부임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디자이너들과 협력해 제품에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이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디자인부터 최종 생산까지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감독하죠. 쇼파드는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문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현하며 조율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제시간에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죠.

S 쇼파드는 많은 메종 중 드물게 주얼리와 워치 모두에 탄탄한 노하우와 히스토리를 지닌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야를 모두 핸들링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까요?

C 물론 두 카테고리에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시너지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확실하죠. 예를 들어 주얼리 세팅 아틀리에에는 20년 이상 쇼파드와 함께하며 주얼리와 시계를 모두 작업하는 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들의 기술을 심화하고 기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날은 아름다운 주얼리를 만들고, 또 다른 날은 시계에 보석을 세팅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려운 점도 존재합니다. 각 분야는 상당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죠. 보석 세팅 과정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고유의 특성과 복잡함도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두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쇼파드라는 브랜드가 훌륭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S 쇼파드의 수많은 컬렉션 제품 중 가장 아끼거나 개인적으로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 있나요?

C 개인적으로 알파인 이글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고 모던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어울린다는 점도 큰 장점이지요. 저 역시 늘 알파인 이글을 착용합니다. 스포티한 느낌으로 캐주얼한 차림에 연출할 수 있고,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격식 있는 차림에도 매우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주죠.

주얼리 컬렉션에서는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새로운 아이스 큐브 컬렉션을 좋아합니다. 기존의 모던하고 현대적인 아이스 큐브 컬렉션 디자인에 볼륨감을 주어 대담하고 젊은 느낌을 기미했죠. 물론 쇼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컬렉션인 해피 스포츠와 해피 하츠 컬렉션도 매우 훌륭합니다. 쇼파드에는 선택지가 무궁무진해 고르기가 정말 힘드네요.

S 방금 언급한 새로 출시된 아이스 큐브 익스텐션 컬렉션은 기존 클래식한 아이스 큐브 컬렉션에서 모던함은 유지하되 한층 더 볼드하고 화려하면서도 어디든 매치할 수 있는 실용성도 갖추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의도된 것인가요?

C 100% 의도한 부분입니다. 이번 아이스 큐브 컬렉션은 보다 대담하면서도 미니멀하고 모던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형태, 텍스처, 그리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기존의 아이코닉함은 유지하면서도 디자인에 변화를 가미하려고 노력했죠. 또 주얼리뿐 아니라 패션, 뷰티까지 전반적으로 성별이나 나이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번 컬렉션 역시 남녀노소 모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려 노력했죠. 요즘 남성들이 다이아몬드를 우아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도 반영해 보다 큰 사이즈의 남성적 디자인도 추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과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럭셔리 아이템을 찾기 때문에 이번 아이스 큐브 컬렉션에도 이러한 변화를 잘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S 이번 아이스 큐브 익스텐션 컬렉션의 모델이자 새로운 앰배서더로 벨라 하디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캠페인 이미지를 보면 아이스 큐브 익스텐션 컬렉션의 패셔너블한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는 듯합니다.

C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녀를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녀는 3년 전부터 칸 영화제를 비롯해 저희와 여러 협업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벨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아이콘이자 성공적인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지닌 아름다움, 우아함, 강인함이 쇼파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1 쇼파드 프로덕트 매니저 캐롤라인 마리 슈펠레(Caroline Marie Scheufele). 2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에 갈바닉 처리한 블루 컬러 다이얼이 개성을 부여하는 알파인 이글 36MM. 3, 4 최근 리오프닝한 쇼파드 갤러리아 이스트 부티크. 5 볼드한 감성으로 출시한 새로운 아이스 큐브 익스텐션 컬렉션 링. 윤리적으로 채굴한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 0.04 캐럿을 세팅해 완성했다.

S 쇼파드는 윤리적 골드 사용 같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지속하기 위한 쇼파드의 노력이 있을까요?

C 지속 가능성은 저희 가족에게 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니다. 2013년에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며 2018년까지 100% 윤리적 금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모든 시계에 80% 재활용 스틸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2028년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타 브랜드에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S 한국 주얼리 워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C 한국 소비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인목을 지니고 있으며 럭셔리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유산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국에 오려 머물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며 전통과 현대적인 혁신이 매력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쇼파드의 가치와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지요.

S 마지막으로 갤러리아 쇼파드 매장 리오프닝에 참석한 것에 대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매장을 방문하게 될 한국 고객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C 저에게 이번 한국 방문은 처음입니다. 또 매장 리오프닝 덕에 인생 첫 리본 커팅도 해보았죠. 그렇기에 더 뜻깊고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리오프닝한 쇼파드 갤러리아 이스트 부티크는 쇼파드의 혁신과 헤리티지를 잘 담아냈으며 우아함과 모던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곳에서 고객들에게 럭셔리한 경험을 제공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죠. 모든 데tail에 쇼파드의 예술성을 담아 정교하게 구성했으며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독점 컬렉션, 그리고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문의 02-6905-3390 에디터 성경민



3 4 5



Another World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찌가 개최한 사진전 <두 개의 이야기: 한국 문화를 빛낸 거장들을 조명하며>를 통해 탐구하는 또 다른 예술 세계.

구찌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파운드리 서울에서 특별한 사진전 <두 개의 이야기: 한국 문화를 빛낸 거장들을 조명하며>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 이번 사진전은 한국 문화에 경의를 표하는 '구찌 문화의 달(Gucci Cultural Mont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사진가 김용호의 시선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예술과 문화의 저변을 닦던 거장인 개념 미술가 김수자, 영화감독 박찬욱, 현대무용가 안은미, 피아니스트 조성진, 비디오 아트 선구자 백남준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탐구했다. 이번 전시에서 사진가 김용호는 인물의 얼굴 가까이에서 포착한 초상과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자연 혹은 오브제의 이미지를 2장 이상 병치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딕티프(diptych)' 기법을 통해 각 거장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비전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먼저 김수자의 '사유(思惟)'는 그녀가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과 정신적 탐구를 담아냈으며, 박찬욱의 '비룡승운(飛龍乘雲)'은 그의 내면에 자리한 강렬한 에너지를 용의 상징성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안은미의 '도망치는 미친넌'이라는 작품은 그녀의 예술적 도전 정신과 선구자적 고고함을 매화를 통해

1 구찌 문화의 달 사진전, <두 개의 이야기> 전시 모습. 2 전시 캠페인을 걸어도 구찌 가죽 외관. 3 전시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구찌의 글로벌 앰배서더 뉴진스 하니. 4 전시에서 공개한 작품 중 일부를 만나볼 수 있는 구찌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상징화하며, 조성진의 '빛나는 청춘은 그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자연의 형상에 빚대어 승화시킨 작품이다. 이외에도 무용수로서 역동적인 몸짓을 구현하는 안은미의 모습을 담은 '노세 노세'와 조성진의 손을 집중 조명된 '춤추는 손' 등 거장의 다양한 면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내면적 주제 의식과 철학적 사유를 더욱 깊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전시 오프닝에는 김용호 작가, 무용가 안은미,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구찌의 글로벌 앰배서더인 뉴진스 하니, 이정재, 박재범, 그리고 김희애, 하정우, 박해일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찌는 한국 예술계의 거장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며, 그들의 예술적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조명하고자 했다. 또 한국 문화와 예술의 풍부함 유산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하우스가 그동안 한국과 쌓아온 문화적 유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 기회였다. 구찌의 사진전은 끝났지만, 사진전에서 선보인 작품 중 일부는 12월까지 구찌 청담 플래그십에서 연장 전시해, 방문하는 모든 이가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52-1921 에디터 윤자경



3 4

We Love You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반려동물을 위한 에센셜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상단의 오픈할 수 있는 스텝 버튼 및 하단의 메시 소재 창으로 완성했으며 무게가 6kg 이하인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웹(Web) 스텝 GG 펫 케리어 4백90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케머마일 꽃 추출물을 함유해 부드럽고 윤기 나는 털로 케어할 수 있는 반려견 전용 커들러-코트 그루밍 컨디셔너 500ml 4만6천원대 **키엘**. 문의 02-3497-9694. 캔버스 및 폴리아미드 소재의 펫 텐트 하우스 3백19만원, 부드러운 렌즈 올 소재의 반려동물 플래드 78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스텝 버튼으로 쉽게 착용할 수 있는 GG 수프림 캔버스 소재의 펫 코트 1백33만원대 **구찌**. 문의 02-3452-1521. 트리오페 메달 메달이 포인트인 길이 조절 가능한 신 미디어 도그 쥘라 48만5천원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엔**. 문의 1577-8841. 누르문 소리가 나는 화이트 와인 모양의 노즈 워크 장난감 2만5천원 **프레시플러시**. 문의 070-8773-8479. 소형견에게 제격인 플라 강아지 밥그릇과 뚜껑 세트 18만2천원 **일레시**. 문의 02-6299-5684. 차약 및 크기가 다른 2개의 칫솔모와 손가락 칫솔로 구성했으며 양치질을 처음 접하는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C.E.T.® 멘탈 키트 가격 미정 **버박**. 문의 02-420-4079. 조각 치즈 모티브에 반려견 자수 패치를 새긴 노즈 워크 토이 블루치즈 2만5천원 **프레시플러시**. 문의 070-8773-8479. 차석 제거 멘탈 겸으로 V.O.H.C.(미국수사국강협의회) 인증을 받았으며 100% 식물성 원재료로 만든 C.E.T.® 베지먼트 프레쉬 가격 미정 **버박**. 문의 02-420-4079. 두 가지 고리를 연결한 천연 고무 소재의 티고 장난감 28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마더 앤 베이비 캣 캔 울트라 소프트 무스트레이 100g 2천6백원 **로얄캐닌**. 문의 080-041-5161. 물을 적게 먹는 고양이들을 위해 수분 98%로 제작한 바이탈 드링크 참치 135ml 3천원 **미아모아**. 문의 02-2038-3727. 천연 나뭇 가지류 소재 케이스에 손잡이를 장착하고 분리 세척 가능한 블랙 세라믹 소재를 더한 비세토스 펫 보울 79만원대 **MCM**. 문의 1600-1976 **에디터 신정민**

호시노야 가루이자와(HOSHINOYA Karuizawa)

단풍과 설경 사이에서의 설렘

여행이라고 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텍스트가 절로 춤을 추는 경우도 있다. 충만한 영감에 그 흐름도 마치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듯 알아서 돌아가지만 단지 게으른 손에 비해 이 춤사위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게 흠이랄까. 가슴이 움직이고 뇌도 작동하는데, 몸이 못 따라가서 그저 키워드 몇 자만 적어두기도 한다. 가을 날씨가 유난히 청아하게 아름다웠던 주말을 틈타 찾은 가루이자와는 바로 그런 흔하지 않은 설렘을 안겨준 여행이었다. 그런 여행의 안식처가 1백10년 전 료칸을 모태로 한 리조트인 호시노야 가루이자와(HOSHINOYA Karuizawa)이고, 여기에 단풍의 절정까지 맛닥뜨렸다면 그 주말은 그저 '축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도리밖에 없다.



님이 없는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호시노야 고객 전용인 '명상 베스(meditation bath)'로 향했다. 극명한 어둠과 빛의 공간을 오가며 스스로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색다른 온천탕! 과연 여행업계에서 차별된 경쟁력을 갖춘 호시노 그룹의 최상위 럭셔리 리조트답다.

그런데 호시노야 가루이자와는 단순히 '럭셔리 리조트'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호시노 가스케가 1914년 처음 개업한 료칸을 계승해 4대 상속자인 호시노 요시하루(호시노 리조트 대표이사)가 2005년 호시노야 1호점으로 문을 연 '원조라' 서일까. 당시 그는 호시노야 가루이자와의 설계를 아즈마 리에(Rie Azuma)라는 여성 건축가에게 맡겼는데, 분명 현대식 럭셔리를 품고 있지 만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담백한 디자인에 단지 전체가 료칸을 품은 커다란 집처럼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독특한 정서의 리조트가 탄생했다. 이는 호시노야 전반의 '도대로' 느껴지기도 한다(아즈마는 그 뒤로도 모든 호시노야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계곡의 마을'이라는 콘셉트를 지닌 호시노야 가루이자와의 매력은 단지 옆에 있는 '호시노 에어리어'에서 더 커진다. 톰보노유 온천을 비롯해 레스토랑, 상점 등이 웅거종기 모여 있고, 19세기 말 가루이자와의 순수한 자연에 끌려 정착해서 지역사회의 단초가 됐다는 선교사의 자취를 볼 수도 있다. 아이스링크를 낚아채기 위한 카페 풍경을 보니 추위를 뚫고 설경을 보러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글 고성연**

작년 가을쯤 만난 도쿄의 한 호텔리어는 '가루이자'에 꼭 가보라고 했다. 돌이켜 보면 일본을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도쿄 아니면 교토, 오사카 같은 간사이 지방의 도시만 주로 찾은 듯하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흔히 '도도부현'으로 정렬되고, 그중 현(県)만 해도 43개나 있는데 말이다. 가루이자와는 나가노현에 속한 도시다. 마침 아트 페어가 열린 교토에서 원래는 대도시 출신인데 수년째 나가노현에서 살고 있다는 젊은 여성을 만났다. 우연히 접한 지역 축제의 열기와 그곳 주민들의 노랫소리, 식재료가 풍부한 자연환경에 반했다는 그녀의 설명에 시골 살이를 통한 느낌의 미학을 담아낸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떠올랐다(실제 배경은 다르지만). 그리고 지난달 초 뻑뻑하고 정신없는 도쿄에서의 일정을 버려내다 주말에 드디어 가루이자와행 신칸센을 탔다. 일단 기차에 빈자리가 보이지 않아 놀랐고, 1시간 남짓 걸려 역에 도착했는데 행복해 보이는 여행객들의 표정에 긴장이 풀렸다. 택시를 타고 호시노야 가루이자와 입구에 도착하자 탄성이 절로 흘러나왔다. 해사한 햇살 속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띠는 공간을 둘러싸고 곱디고운 단풍이 압도적인 스펙트럼을 뽐내고 있어서였다.

'단풍'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었다. 기후온난화 탓인지 올해는 단풍이 늦은 편이라 교토와 도쿄에서는 구경도 못한 터라, 나가노현이 훨씬 더 촉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필자를 안내해준 호텔 직원은 "일본에 온 이래 무척 바쁘셨더니 (단풍) 운은 참 좋으시다"면서 "지금이 절정인 것 같다"고 배서시 웃었다. 계단식 논을 모티브로 한 정원을 걸으며 오묘한 색색의 단풍과 배경음을 깔아주는 새들에게 환영 인사를 받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둡해졌다.

자연의 숨결 속 미식과 온천, 그리고 탐험

그래도 즐길 거리는 넘친다. 창이 나 있는 스파에서 곱게 물든 단풍이 노을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손맛' 야무진 마사지를 즐겨도 되고, '산의 가이세키'라고 불리는 나가노현의 신선한 미식을 탐해도 된다. 또 1990년대 초반부터 예코 투어리즘의 선봉에 선 가루이자와의 명성 높은 날다람쥐의 야간 비행을 지켜보는 '피키오' 투어에 참여해도 된다. 그런데 사실 등지에서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 덕에 화면으로 보이는 어미 날다람쥐가 나오기만 야외에서 기다리다 가운이 뚝 떨어지자, 한 차례 멋진 비행을 목도하고는 낫다 근처 '톰보노유' 온천으로 뛰어가기 했다. 원천수로 채운 실내탕, 노천탕, 사우나 시설을 둔 이 온천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마침 실내탕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한 사과가 한가득 떠다니고 있고 꼬마들은 사과 잠기에 여

- 1 곱게 물든 단풍이 반겨주는 호시노야 가루이자와 입구. Photo by 고성연 2 1915년 수원이 톰보노유(Tombo-no-yu)의 설경 속 자체. 이 온천과 여러 상징이 모여 있는 쇼핑 아케이드, 건축 명소인 돌 교회, 아이스링크 등이 있는 영역을 '호시노 에어리어(Hoshino area)'라 부른다.
- 3 독특한 날다람쥐(flying squirrel) 워칭 투어는 늘 인기 만점이다. 나가노현은 스키, 스케이팅 같은 겨울 스포츠로도 인기가.
- 4 독채로 구성된 호시노야 가루이자와의 객실 (전체 77개)은 세 종류로 '쇼 감성'에 좋은 '야마로지', 계곡의 물 흐름을 느끼는 '미즈나미', 정원 속 별장 느낌인 '나와로지'가 있다.
- 5 물의 객실인 미즈나미.
- 6 다이닝 공간에서는 지역 특산물로 요리한 미식을 즐길 수 있고, 그 옆에는 다과와 음료, 책을 구비한 라운지도 있다.



NEW LIPSTICK



다들 뷰티 다들 어딴 립스틱 #324 페스티브 코랄 + 다들 어딴 패션 케이스 - 그랑발 코렐 핑크 컬러 데일리 바르기에 제격. 무엇보다 피부 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립스틱 3.2g 5만7천원, 케이스 4만5천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윤자경

Editor's Pick

피부 속을 건강하게 채워주고 예쁜 패키지가 더해 연말 선물로도 제격인 뷰티템 10.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NEW LOTION

달바 화이트 트러플 모이스처라이징 세럼 로션 피부에 깊은 영양을 주어 매끄럽고 쫀쫀한 피부를 만날 수 있었다. 끈적임 없는 밀키한 텍스처도 장점. 100ml 5만4천원. 문의 02-332-7727 _by 에디터 윤자경



엠큐리 코어 파워 리프팅 프로그래밍 듀오 콜라겐 볼에 액티베이터를 혼합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2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사용 후 피부 톤부터 결, 탄력까지 즉각적으로 개선되었다. 액티베이터 20ml + 콜라겐 14ball 12만8천원. 문의 1588-7667 _by 에디터 성정민

누텍처 바우시 립 트리트먼트 컬러 버블 겸 데일리 립 케어는 물론 은은한 컬러감과 플럼핑 효과까지 선사해 각질을 잠재우고 립을 촉촉하고 생기 있게 연출한다. 10ml 2만2천원. 문의 070-8787-6008 _by 에디터 성정민

NEW PERFUME

샤넬 N°5 오 드 파르페 컬렉터 보틀의 어깨에 섬세한 실크 베일을 씌워 은은한 눈썹을 입은 것처럼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플로럴 알데하이드로 포근한 무드를 선사한다. 100ml 32만5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윤자경

맥 기프트 오브 골드 컬렉션 스킨피니쉬 메탈릭 크림 블러쉬 프라이스리스 퍼머 메탈릭하고 고운 펄 입자에 잘 익은 포도가 연상되는 컬러로 얼굴에 화사함과 입체감을 부여한다. 5.7g 4만7천원. 문의 1644-3748 _by 에디터 신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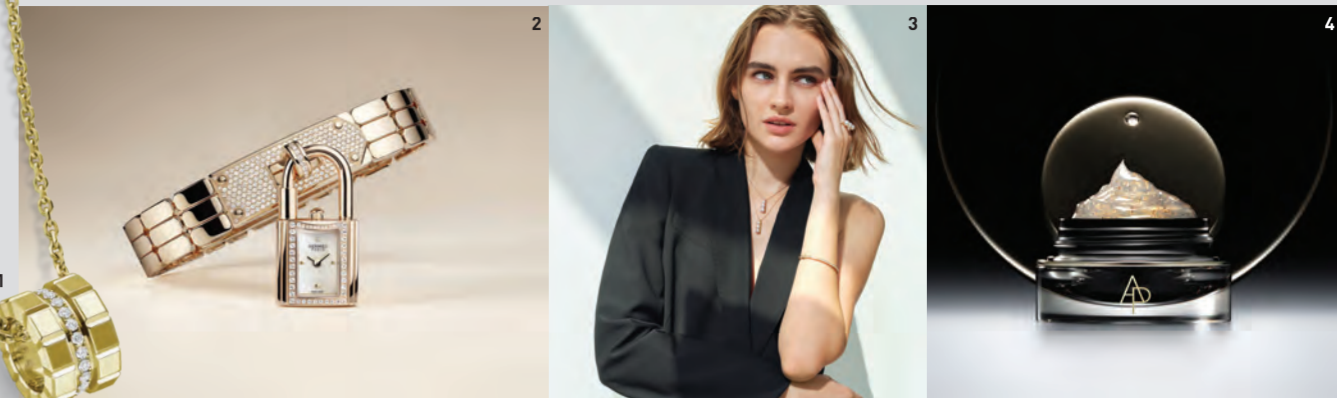
러쉬 배스 밤 스타 오브 윈터 별 모양의 배스 밤. 무지갯빛 배스 아트로 보는 눈이 즐겁고 코코넛 밀크 파우더, 페퍼민트 오일 등을 함유해 피부 진정과 보습에 효과적이다. 95g 1만7천원. 문의 1644-2357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딤티크 클래식 캔들 사뮅 영국 수공예 아티스트 루시 스페로우와 협업해 탄생시킨 홀리데이 데코 컬렉션의 리미티드 에디션 캔들. 소나무 에센스와 발삼 퍼의 송진 향이 어우러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낸다. 190g 12만4천원. 문의 02-3446-7494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샹테카이 쉬어 글로우 골드 페이스 틴트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피부에 은은한 광채를 부여해 본래 피부가 좋은 듯한 내추럴 스킨을 연출해준다. 30g 13만3천원. 문의 070-4370-7511 _by 에디터 성정민



1 소파드 아이스 큐브 컬렉션 소파드에서 정육면체를 모티브로 한 아이스 큐브 컬렉션을 출시했다. 작은 직사각형 조각으로 다양한 정렬을 통해 정육면체를 해석한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윤리적인 공정으로 생산된 금을 사용한 3가지 색상으로 선보였다. 링,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등 다채로운 제품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6905-3390



2 에르메스 켈리 브레이슬릿 워치 에르메스에서 연말 선물로 켈리 브레이슬릿 위치를 제안한다. 1975년에 처음 선보인 켈리 워치를 재해석해 현대적으로 새롭게 제작했으며, 천연 자개 다이얼에 로즈 골드 메탈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해 네크리스로도 착용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문의 02-542-6622

3 타사키 '밸런스 플러스 네오' 라인 일본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에서 소중한 이들을 위한 선물로 '밸런스 플러스 네오' 라인을 제안한다.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시쿠라 골드™ 등 3가지 골드로 구성된 펜던트와 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아코야 진주 3개를 수직으로 세팅해 유니크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3461-5558

4 에이피 뷰티 '프라이미 리저브 리트리니티 나이트 엘렉시아' 출시 에이피 뷰티에서 초고가 라인 프라이미 리저브 라인에서 신제품 '프라이미 리저브 리트리니티 나이트 엘렉시아'를 한정 출시했다. 플라보노이드 228K™, 골드, 다이아몬드 등 최귀 성분을 담아 일반 안티에이징 크림보다 5배 강한 탄력 개선 효과와 오메이틴 마스크로 밤 동안 피부를 집중 관리해 최적의 피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80-023-5454

5 로로피아나 <Master of Fibres(섬유의 장인)> 출간 이탈리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1백여 년의 역사와 유산을 기념해 양모 무늬 화사에서부터 오늘날의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Master of Fibres(섬유의 장인)>를 출간했다. 영국의 작가이자 역사학자 니콜라스 폴크스가 집필하고, 최초의 문화 럭셔리 브랜드 예술관에서 출판해 로로피아나의 역사를 선보였다. 문의 02-6200-7799

Showroom



6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컬렉션 새로운 타임피스 공개 블랑팡에서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에서 블랙 세라믹 소재 바티스카프의 특징을 담아낸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다. 블루, 그린, 블랙 등 3가지 다이얼로 구성했으며 세라믹 브레이슬릿, 캔버스 스트랩 등 다양한 스트랩 옵션을 제공해 무드에 따라 교체해 착용할 수 있다. 문의 02-3479-1833

7 샤넬 뷰티 다이아몬드 더스트 샤넬 뷰티에서 연말 파티 메이크업을 위한 하이라이터,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제안한다. 오로라와 밝게 빛나는 눈썹에서 영감을 받은 2024 샤넬 윈터 테일 컬렉션 제품으로 표면에 엠보싱으로 눈썹 모티브 장식을 더했다. 진주빛 입자를 함유해 피치 핑크 컬러로 화사하고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80-805-9638

8 시세이도 연말 기프트 제안 시세이도에서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사랑받는 제품인 '얼티뮤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를 연말 기프트로 제안한다. 얼티뮤 콤플렉스와 히비스커스 추출물을 담아 도심 속 유해 환경에 노출된 피부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आयुजेने레이션레드(ImuGenerationRED)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80-564-7700

9 지방시 뷰티 지방시 홀리데이 에디션 지방시 뷰티에서 파리의 별이 빛나는 겨울 밤과 지방시의 화려한 오토 쿠티르 컬렉션이 연상되는 2024 지방시 홀리데이 에디션을 출시했다. 지방시의 아이코닉한 르 루즈 앵페르디부터 프리즘 리브르, 르 9 드 아이세 도우 등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제품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화려한 크리스탈 패키지와 특별한 컬러 조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1-9500

10 폴라온지 후지타가 알타 레더 트트백 폴라온지에서 일본 가죽 브랜드 후지타카의 알타 레더 트트백을 제안한다. 바닥면의 고정 핀으로 높은 내구성과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알타 레더 트트백은 최상의 가죽 소재를 선별하는 검사를 통과해 가구나 인장에 사용되는 소재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문의 02-3438-6142

11 몽클레르 리/아이콘 세 번째 에디션 출시 몽클레르가 매년 브랜드의 상징적인 스타일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리/아이콘(RE/ICONS) 컬렉션에서 세 번째로 베로네를 새로운 버전으로 공개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드레스가 연상되는 블랙과 화이트 모노크롬 디자인의 베로네 오푸스와 디지털 기술로 1980년대 클래식을 과장된 스타일로 재현했다. 컬링을 부풀리고 탈착 가능한 칼라와 소매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베로네 S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030-8321-0794



* 상용(30대 미만), 일반(30대~49대), 신중년(50대~64대), 노년(65대 이상) 기준. 신중년(50대~64대) 제외



louisvuitton.com

LOUIS VUITTON